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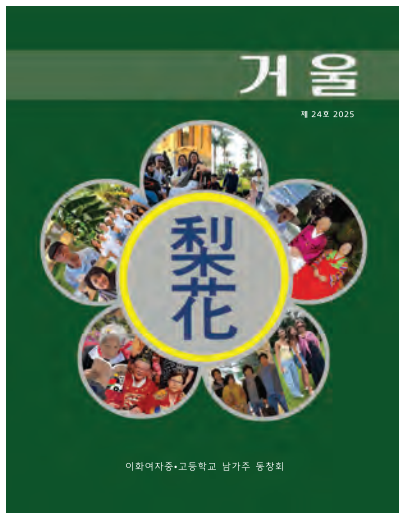
거울

제 24호 2025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목차 Vol. 24 2025



03	인사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장 김세은 (76)
04	축사	남가주 후원 이사장 이해옥 (66)
05	축사	이화여자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은숙
06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박영혜
07	축사	북미주 총동창회장 최한희 (64)
08	축사	이화장학재단 이사장 장예순 (64)
10	한영숙(56) 선배님을 추모하면서	최한희 (64)
12	Well Aging	박영혜 (52)
14	Well-aging 은발의 자부심	이주혜 (75)
16	Well-aging	곽동숙 (72)
17	해당화 만발 한 그리운 언덕	이영순 (53)
18	가장 가까운 친구를 떠나보낸 그리움	이혜리 (56)
20	봄치녀 제오시네	홍정임 (56)
21	이화, 그리고 60년 자유·사랑·평화	김정자 (64)
22	Chronicles of my 60th 이화 Reunion	한은지 (65)
24	Tomorrow is not my day !	정덕주 (66)
25	시 오늘	이민자 (61)
26	이화 졸업 55주년 기념 여행기	김춘영 (70)
28	50주년 재상봉에서의 2박 3일 증도여행	장현주 (75)
30	망막 뒤에 남겨진 한가지 영상	서효숙 (75)
32	우리들의 성경 통독 이야기	정영옥 (76)
34	70을 바라보며 혼자 여행을 떠나다	김미래 (75)
36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정혜원, 최선하, 김하은, Hannah Sung
38	이화코랄	전안복 (74)
39	이화여고동창 합창단	김미혜 (77)
40	이화 배재 음악회	고혜경 (76)
41	이화 걷기반	백혜란 (70)
42	라구나우즈	이의정 (69), 김혜련 (57)
43	Huntington Library	(76)
44	Hollywood Bowl	(76)
45	이화골프	신호정 (76)
46	기소식	
62	재정점검, 은퇴준비의 첫걸음	윤조현 (재정전문가)
63	Somatic memory	이성자 (76)
64	2024년 크리스마스	
66	2025년 회의모임	
67	거울 사진관	
76	책 소개와 독후감: [Plus Ultra]를 읽고	이혜경 (69)
81	편집 후기	박은란, 이영심 (76)
82	제 12 차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83	제 12 차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하와이 행사 일정표	

제 24호 거울지를 발행하며



남가주 이화 동문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2025년 76기 동기들과 함께 동창회 일을 하며, 동문님들과의 소통과 교류는 참으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월은 LA 에서 계속되는 산불로 인하여 동문님들에 피해가 없기만을 기도했고, 염려와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동문들과 더 어려운분들을 위해 도움을 사양하는 동문님들의 성숙함과 사랑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월에는 남가주에 거주하시는 1,000 명이 넘는 동문들께 편지로 문안드리고 행사 일정을 알렸습니다. 3월에는 정기 이사회로 열렸고, 테너 전승철님의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5월에 열린 창립 139주년 기념예배와 57회 정기 총회에서는, 전반적인 보고와 76기 동기들의 오토하프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문화 탐방 동아리에서는 5월 Huntington Library 방문과 8월의 조성진 피아노 연주회 참관을 준비하여, 선배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9월에 이화 골프 대회도 많은 참여 속에 잘 마쳤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본교 장학생들과 네명의 미주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다섯분의 선교사님께 도움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여러 동창회의 행사와 사업을 위하여 후원과 격려해 주시는 동문님들의 이화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계속되는 적극적인 참여로 이화 동창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4호 거울지를 발간하며, 76기 임원진들의 수고와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12월 송년 모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며 동문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장 김세은 (76)



“Aging Well-잘 늙어가는 비결”

이화 남가주 거울24호 발간을 축하 드립니다.

우리 모두 중년을 넘거나 노년에 들어가 있기에, 이번 주제가 더욱 뜻깊게 느껴지네요.

지난 열흘동안 여덟 식구 가족 여행에 따라다니느라고, 어리고 젊은 자식/손주들에게 부담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녔더니,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건강은 100+!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Chat GPT에게 물었더니, 몸과 마음/정신건강/생활방식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게 최고 비결이라고 하네요. 모두 아는 것이지만, 매일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다 보면, 제일 눈에 띄는 얼굴에 보이는 주름/주근깨 없애고 싶어서 돈과 시간을 쓰게 되는데 ... 영육을 골고루 간수하는 방법을 스스로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이화 동문들이 많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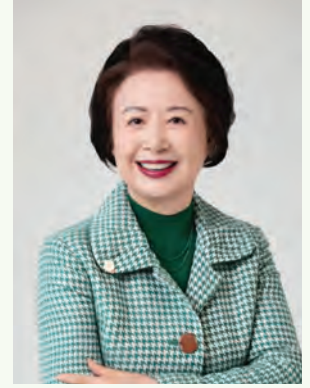
좋은 글들을 통해 서로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는 방법/경험담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함께 “잘” “멋있게” 늙어갈 수 있는 이화 동문 선후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남가주 후원이사장 이혜옥 (66)

남가주에 피어난 사랑스러운 배꽃들!



2025년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남가주 동창님들의 열정적인 이화 사랑과 물심양면의 지원이 모교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백주년기념관 화암홀 총회에서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은숙(65)입니다. 모든걸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소임을 잘 완수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주실거라 믿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모교 사랑과 헌신적인 활약은 누구도 따를 수 없을것 같아요. 자유, 사랑, 평화의 교훈이 우리 삶에 녹아 변함 없는 이화 사랑으로 이어진것 같군요.

이화의 녹음질은 아름다운 교정에서 가진 5월의 창립기념일 행사는 소문난 잔치집 같았지요. 2025년 재상봉기는 55, 65, 75, 85 었답니다.

45년 동창님 한분은 따님의 부축을 받고 참석하여 많은 박수 갈채를 받으셨어요. 많은 동창님들이 마음의 고향같은 모교를 찾아 옛 건물도 둘러 보고, 노천극장도 왜 이렇게 줄여 놓았느냐고 물어 보고, 등나무 길도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답니다.

옛 친구들과의 수다로 순수했던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마법같은 시간들!! 이런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것은 참으로 행운으로 생각되네요. 많은 창립기념일 행사 중 양화진 선교사 묘소 헌화와 감사예배, 재상봉기 해외동창들 위한 철원이화농장 견학과 땅굴체험, 또한 전야제적인 노천 극장에서의 이화횃불 예배는 정말 감동스러웠지요. 창립기념일의 꽃이라 할수있는 이화사랑 온라인, 오프라인 바자는 약 3천명의 동창들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담아 남가주 동창회가 더욱 번창하기 바랍니다. 이화의 강건한 뿌리인 동창님들의 모교를 위한 사랑과 아낌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총속에 지내는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거울지 발간을 축하하며~

August. 13. 2025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은숙



사랑하는 남가주 동창님들께,

을 함께 나누었으며 이 소중한 기억이 내년 140주년으로 그대로 이어지길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먼 이국에서 늘 모교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남가주 동창님들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거울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성껏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1984년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35년간 교사, 교무부장, 교감을 거쳐 지난 3월 이화여고 16대 교장으로 취임한 박영혜입니다. 늦었지만 지면으로나마 문안드립니다. 139년의 전통을 이어온 이화는 동창님들의 모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 덕분에 지금까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가주 동창회가 보여주신 장학금 모금 활동과 모교 발전을 위한 후원과 관심은 재학생들에게 큰 울림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31일 모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창립 139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학생 1200명과 교직원, 재상봉 동창님 500여 분을 비롯한 많은 동창님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셨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송출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많은 동창님이 함께 축하를 해주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특히 40주년(85졸업), 50주년(75졸업), 60주년(65졸업), 70주년(55졸업) 재상봉 동창님들의 뜨거운 참여로 창립 기념식이 훨씬 풍요로웠으며 졸업 80주년을 맞으신 이정숙선배님(45졸업)이 휠체어를 타고 따님(74졸, 김미향 선배님)과 함께 참석 하셔서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가슴 뭉클하게 기념식을 빛내주셨습니다.

또한 창립 140주년을 준비하는 사전행사로 5월 15일 이화박물관에서는 <한 줄기 새 빛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학교 체제의 변화 과정, 그리고 이화여고가 한국 여성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화의 첫걸음과 성장을 조명하며 그 역사적 가치와 정신

현재 모교 이화는 기독교계 사학 존립에 대한 교육청과 사회적 압력,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한 우수 신입생 유치 방안 모색, 우수하고 열정적인 교사 확보의 필요성, 종교 교육의 자율성 확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압박에 대비한 정책 조정과 같은 교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확고한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자사고로 출발한 지 지난 15년간 학생·교사·법인의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학교 구성원의 학교 만족도 및 입시 결과의 지속적인 향상을 이루었고 이는 더 좋은 학생이 지원하고, 교사들의 더 높은 열정으로 질 높은 수업을 이끌어내고, 다시 대학 입시 결과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궤도에 들어섰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화는 곧 다가올 14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 사랑, 평화'라는 교훈 아래, 새로운 백 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이 길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세계 곳곳에 계신 동창님들이기에, 그 존재만으로도 모교에서 배움을 다하고 있는 후배들과 교직원들은 늘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한국인을 교육하고자 하셨던 설립자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E.W.H.A.다운 교육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힘찬 여정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거울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가주 동창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합니다. 곧 맞이할 140주년의 기쁨을 남가주 동창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혜
이화여자고등학교장

2026년 10월, 하와이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요



우리들의 소식지 거울 24호가 출간됨을 기뻐하며 축하 드립니다. 올해는 76년, 활기찬 후배들이 만드는데 거울이라 어느때 보다도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이번 거울지 주제는 "Well- Aging" 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 매일의 삶에서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우리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볼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비록 나이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시간동안 열심히 꽃피우는 삶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어 후배들의 Role Model 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비록 삶의 영역은 줄어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점점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더욱 깊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4년 10월 북미주 동창회를 이곳 Los Angeles에서 개최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우리 북미주 동창회 지부 중에서도 제일 회원이 많고 활동이 많으며, 따라서 본교에 기여하는 바도 가장 큰 단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올 3월 북미주 초대 회장이신 한영숙 선배님께서 소천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화 동창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헌신해 오신 선배님을 보내면서 많은 동창분들이 섭섭해 하셨습니다. 고인이 남기신 미술품으로 가진 Silent Auction에 남가주 동창회원들이 참여해 모금을 해 주시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성금을 보내 주셔서, 본교에 북미주 한영숙 장학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동창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미주 동창회에서는 2025년 2월 12일, 북미주 각지역의 현회장단과 역대회장들로 구성된 임원회를 zoom meeting 으로 가지고, 그동안 Illinois State에 등록 되어있던 북미주 Non-Profit Organization, " Ewha Educational Foundation" 을 California State로 이전하는 결정을 하면서, President 최한희(64), Treasurer 이영희(74), Secretary 권선희(75)를 선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20년 동안 Treasurer로 수고하신 고 한영숙 선배님을 추모하며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에는 2026년 10월 8일 - 11일(3박 4일) 일정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화여고 북미주 제 12차 총회로 다시 모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기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장 최한희 (64)



남가주 동창님들, 안녕하세요?

이화 남가주 동창회의 24번째 거울지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작고 어린 한 소녀의 손을 잡고 시작한 이화의 여성 교육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1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약 이 힘되고 어둠의 빛되는 역할을 감당하며 거목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화동산에서의 3년 혹은 6년 동안 우리들은 자유, 사랑, 평화가 우리의 영육 간에 물들여졌고, 그렇게 채색된 이화인들은 정의 앞에서 용감하고 나눔의 자리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장학재단 일을 맡은 지난 7년의 시간 동안 받은 감동은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장학금과 유관순 건축 기금을 기부하여 주시며 하시는 말씀과 사연들은 결국 '사랑' 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주 동창님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신 이화사랑은 적극적이셨고 지속적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64동기가 작년에 60주년 재상봉을 치르며 보여준 미주 동창들의 모교사랑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며 자랑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화장학재단은 2010년 설립부터 2024년까지 3,45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장학사업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연구비 지원, 교사 연수비 지원, 노후된 교육 시설과 교육용 기자재 지원 등 이화장학재단은 기부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좀 더 많은 후배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기부자의 취지에 부합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소속된 여타 장학재단을 비교해 볼 때 '이화장학재단'은 자산의 규모와 장학사업 실적 그리고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글로벌하게 퍼져있는 이화 동창님들의 모교 사랑, 후배 사랑 덕분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화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갈 후배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LA를 포함해서 주변 지역 동창님들을 이화사랑으로 묶어주시는 남가주 동창님들을 비롯하여 미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화인들이 주안에서 강건하시고 기쁘고 보람된 날들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장학재단 이사장 장예순 (64)

남가주 동창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세온 동창회 회장 및 76기 일동





한영숙(56) 선배님을 추모하면서...

최한희 (64)

이런 날엔 언니가 그리웁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잘못 했거나 실수했을지라도 억울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내편이 되어서 함께 나누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곤 합니다. 털어놓고 나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선명해 지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한영숙 선배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고 나누어 주고 위로가 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화에 관련된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어 존댓말을 하시고 항상 겸손하신 모습을 많은 후배들이 경험 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하는 태도입니다. 올해가 88세로 90이 가까운 나이에든 장거리 운전을 하며 지인들을 Pick up 해서 다니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게 베풀었던 언니 손에는 조그마하고 반짝이는 결혼반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검소한 언니의 모습이 더욱 멋있고 귀해 보였습니다.

몸소 틈틈이 첼로를 연주하셨던 언니는 음악을 사랑했고, ART를 사랑하셔서 후배들의 전시회에는 꼭 방문하셔서 작품 하나라도 꼭 사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모임이나 후배들의 모임에 참석하실 때는 꼭 coffee, chocolate, 과일과 dessert를 손수 준비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하면 운동도 좋아하시어 종종 테니스로, weight lift로 건강을 지키셨는데 한님께서 더욱 약하고 험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셔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영숙 선배님께서 동부에서 이곳 Los Angeles로 이사를 오시고 2003년 이곳 남가주 이화 동창회에 분란이 있었을 때 2003년 회장을 맡으시고 그 분란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남가주 회장으로 계실 때 북미주 이화여고 동창회를 조직하시고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선배님을 도와 미 전국에 있는 이화 동창들로부터 약 28만불을 모금한 기억이 있습니다. 미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가 140여 년전 스크랜턴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하여 많은 선교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에 뛰어난 일은 이화학당을 설립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에 빛진 자들입니다. 그 빛의 일부라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 모금을 시작하였고 마침 미여성교회가 한국에 스크랜턴 센터를 세우고 이화



73 졸업생인 김혜선 목사님을 사무국장으로 파송하였습니다. 모금된 전액은 이 센터에 보내졌고 이 금액은 동남아 각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여성 리더들을 키우는 데 쓰여졌습니다.

모금을 하면서 EEF(Ewha Educational Foundation)라는 non-profit organization (Chicago)을 만들었고, 회장에는 Chicago의 김정희 선배님, 그리고 한영숙 선배님은 EEF의 Treasurer로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근 20년 동안 많은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 이 일을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 이제는 이 직책을 내려놓으시겠다고 하여 EEF를 California 주의 non-profit organization 로 바꾸는 작업을 거의 끝내시고 후배들에게 일임을 하셨습니다.

2024년은 북미주동창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셨는지 창립한 이곳 LA에서 꼭 20주년을 치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개회날인 10월 14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와중에 암이 발견되어 올해 2025년 3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담담하고 여

유 있게 죽음을 받아들이신 존경스러운 모습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소천하신 후 북미주 많은 동창들께서 애석해 하시고 가족장이라 영결식에 참석 못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동창회에 한영숙 장학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족들께서 선배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미술품을 donation 해 주시어 Silent Auction으로 \$28,100과 여러분께서 성의껏 보내주신 \$27,000, 총 \$55,100(74,605,158원)을 6월 말 본교에 송금하였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천국에 가신 선배님을 추모하며, 이 장학금으로 인하여 선배님 닮은 많은 훌륭한 후배들이 양성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이화를 극진히 사랑하신 선배님께서도 천국에서 기뻐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4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DIAMOND GLOBAL ESCROW, INC.

Audra Hong
홍훈정 (70)
Director

22632 Golden Springs Dr. Ste. 160
Diamond Bar, CA 91765

Cell: (818) 402-2005
Tel: (909) 860-3333
Fax: (909) 860-3330
Email: audra.hong@diamondge.com



박영해 (52)

"Well Aging"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늙어가는 것인가?

살다 보니 어느새 손가락으로 몇십 번을 접었다 펼쳤다 해도 내 나이를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그럼에도 내가 아직 충기와 몸에 움직임에 별로 불편함 없이 지속하며 매일의 일과에 열중하게 된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나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한다.

우리 가족은 이북의 평안남도 평양시에서 살고 있었으나, 8.15 해방 후 무자비한 공산당의 세력으로 폭력의 정치하에서 죽음을 피하기위해 온 식구가 1946년 말에 탈북하였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국민학교를 마칠 때 저희 오빠들의 뛰어난 Sports talent를 따라 대동강에 나가 speed skating을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 빙상에 많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연습함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지요.

탈북 이후 서울의 이화여고에 신봉조 교장선생님의 면접 후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영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평양에서 어린아이지만 뛰어난 스케이터로 칭찬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 교장선생님은 활기있게 웃으시며 "우리 이화에는 빙상부가 있으니 그 부서에 합류하여 우리 학교를 위해 열심히 하여라!" 라고 부탁하시고, 저는 말씀을 따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몸에 딱 끼운 uniform을 입고 군중 앞에서 운동하는 것은 불편한 시선과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 교장선생님의 당부 말씀과 약속으로 이화의 이름을 걸고 열심히 연습과 단련을 하였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 짐을 느끼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빙상경기대회 때는 빠짐 없이 우리 이화가 일등 상장과 우승컵을 획득하는 주인공이 되곤 했습니다.

1.4 후퇴 후 서울로 환도하며 세계선수권 출전자로 뽑히게 되었고, 1956년도 이화여대 4학년 재학 시에 Olympic (Italy), World Women's Champion Game (Sweden)에 이화와 대





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출전하였습니다. 10년간 매일 7시간의 훈련을 거쳐 받게 된 기쁨이었고, 이런 10여 년간 훈련을 거치는 동안 내 마음속에 '하면 된다' 라는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이화여대 졸업 후 미국 유학 시험에 합격하여 미국대학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University of Illinois, Decarb, Illinois에 입학 후 2년만에 졸업과 동시에 영양사(Dietitian) 자격을 받았고, 병원에서 영양사로 일을 했습니다.

1958년도 미국에는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았고 외로운 세월을 보내게 되었으며 그때만 해도 인종차별을 받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을 알리려고 노력했는데, 나 자신이 마치 한국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 같았습니다.

미국 사회에 점차 적응함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들도 받게 되었지요. 우리 후배님들께서도 미국에 오셔서 각각의 힘든 경험과 고생하였던 story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니, 이것도 나의 성숙한 믿음과 마음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이겨 나가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지나온 모든 경험과 삶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한 단계씩 발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또 베델교회에서 문화선교단을 구성하여 한국 춤, 성극과 율동 등으로 60세가 넘는 나도 쓰임 받도록 주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

1. 成功과 幸福의 基礎는 健康이다
2. 眞實하고 義理를 지키는 사람이 되라
3. 自立할수 있는 生活能力을 가지고 儉素한 生活를 하라
4. 明朗한 態度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1958年1月28日 辛鳳祚

여러 나라를 다니며 내게 주신 talent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talent 하나가 아니라 몇가지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모이면 어떤 분은 '나 이타령'을 하며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물론 나이에 따라 몸의 부자유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정적인 틀에 묶어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마가 9:23) 이 성경 구절은 참으로 나를 일으키고 움직이게 합니다.

나이는 오직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다 옳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몸을 이끌며 '나는 할 수 있다'의 신념으로 육체적인 나이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영적 나이를 구상해 놓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나에게 주어진 talent로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에 꾸준한 삶의 습관을 가져야 하겠지요. 마치 내가 운동선수가 된 것 같이 아침이라는 'Start line'에 서서 그 날의 맡겨진 일과 생각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경주를 내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데 힘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Never give up!"

우리 인생의 행로를 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주혜 (75)

Well-aging 은발의 자부심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었다. 대학교 졸업이 가까운 어느 날 교수님들과 우리 과의 학생들 모두 같이 졸업 파티를 했었다. 흥이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돌아가면서 친구들 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 친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 한 명이 불쑥 “주혜의 별명은 칼이야” 라고 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굉장히 두리몽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더러 칼이라니?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는 너무 Yes 와 No가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그때의 쇼크는 너무 컸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나아가 들면 인자하고 따스한 사람이 되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온화한 인상을 주는 고운 할머니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데....

우리 집안의 유전자 때문인지 나는 중학교 때부터 새치가 유독 많았다. 점심 때가 되면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흰머리를 뽑아 주면서 흰머리 하나 뽑을때마다 10원씩을 달라며 내 새치를 뽑아 보여주며 깔깔대고 웃는 적도 많았다. 머리술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까매서 귀밑 1cm의 단발머리를 해야 하는 그 당시에는 미장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창피했다. 미용사들은 나의 머리술이 많아서 짧게 자르고 다듬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을 늘 내게 했었다.

한 번은 미용사가 내 머리를 자르다가 오른쪽 귓부리 끝을 실수로 잘라서 피가 철철(?) 난 적도 있었다. 또한 선배 언니들이 장난 삼아 고개를 숙이라고 하며 자로 나의 머리술을 재며 놀리는 일도 있었다. 그 후로 나는 학교 트라우마가 생겨서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었다. 하는 수 없이 엄마가 학교에 이야기를 하여 특별히 머리를 길러서 꼬매도 된다는 허락을 교장 선생님께 받았다. 그때는 우리 학년부터 중학교를 뽑기로 들어갔는데 이미 선배 언니들은 모두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학교라서 머리 기르는 것에 너그러운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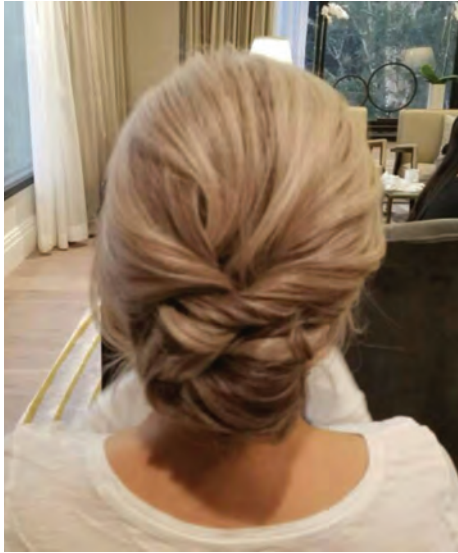
나의 머리에 대한 에피소드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40대부터 흰머리가 많아진 나는 미장원에 갈 때마다 술이 많아

서 파마를 하려면 파마약과 염색약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불평(?) 아닌 불평을 들었고 그럴때마다 괜히 머쓱하고 미안해져서 팁도 훨씬 많이 주었고, 미장원을 나올 때마다 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야단맞고 오는 기분이라 미장원에 가는 게 항상 고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장원과 멀어져 갔고 더욱이 시간 오래 걸리는 파마는 그 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흰머리 뿌리 염색은 항상 우리 둘째 딸한테 해 달라고 했었다.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다 보니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내 눈으로 앞에 불쑥불쑥 나온 흰머리를 부분 염색하기란 나에게 벅찼다. 둘째 딸도 몇 년을 그렇게 해 주다가 나중에 드디어 선언을 하였다. 미장원 가서 염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

드디어 나는 50대 초반에 머리 염색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자연스레 노화가 되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기로 하였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사람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을 하였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계속 다닐거냐? 보기 흉하다, 성의가 없어 보인다, 남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나이가 10년은 더 들어 보인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 언제 염색할거냐? 게을러 보인다” 그냥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안부 정도로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상처가 되어 생각해 낸 변명(?) 아닌 변명이 “나는 염색약에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는 염색을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나 보다.

일 년이 지난 후 나의 은발 머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다. 내가 가르치는 중학생들은 나의 머리가 너무 예쁘다며 어디서 염색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 여학생들의 눈에는 흰머리가 노화라는 생각보다는 그때 한창 유행했던 재 색깔 (ash color)의 염색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친구들도 점차 내 얼굴이 부드러워 보인다고 애기해 주었다. 그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자부심이 생긴 일들이 있었다. 동료 친구의 추천으로 Mexican hair stylist 한테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 분이 자기 작품들을 Portfolio에 모아서 어느 잡

지사에 출품을 하려고 하는데 내 머리 스타일을 사진 찍어서 넣어도 되겠냐는 것이었다. 너무나 놀라서 내 얼굴이 안 나오는 조건으로 그러라고 했다. 잡지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제의를 하는 게 마냥 신기했었다. 그 후에 우리 두 딸을 결혼시킬때 (2년 간격으로) 나는 또 무척이나 고민을 했었다. 두 사위의 안사돈들이 나보다 훨씬 젊고 예쁜데 어찌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일 텐데 머리 염색을 해야하나? 그런데 예상 밖으로 두 딸은 흔쾌히 나의 은발을 그대로 간직하라고 해서 너무나 고마웠다. 그



런데 이번에도 신부 화장을 해 주는 젊은 Hair stylist가 신부 엄마의 머리를 자기 portfolio에 간직하고 싶다고 나에게 허락을 해달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첫째 딸 결혼 때의 내 머리와 둘째 딸 결혼 때의 나의 머리 스타일 모두를 그 분의 portfolio에 올리게 되었다.

내가 어렸을 때 미국 노년 부부의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salt and pepper 머리색의 두 노부부들이 석양이 물드는 노을을 바

라보며 해변가를 거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나도 내면과 외면이 모두 멋지게 나이 들고 싶어졌다. 속사람이 성숙하면 겉으로 표현이 되겠지? Well aging 하는데 은발 머리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지? 이제는 은발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나의 검은 머리가 상상이 되질 않는다.

애들아! 이제 나의 별명은 칼이 아니지?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졌지? 좀 온화해 보이니? 나의 은발 머리가 잘 어울리니? 나 이만하면 나이 잘 들어가는 거 맞지? 대학교때 내 별명을 말해준 그 친구를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The glory of young men is their strength, and the honor of old men is their gray hair.)” 잠언 20:29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A gray head is a crown of glory; It is found in the way of righteousness.)” 잠언 16:31

C E R A M I C S
 CREATE • CRAFT • CONNECT
 YOUNG SHIN KIM
 박영신 (6 7)





www.kimyoungshin-ceramics.com



Well-aging

곽동숙 (72)

어느덧 나이가 65세가 넘으면서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차에 느닷없이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항상 전조 증상이 있다는데 생각도 못 하고 주변에 이런 환자도 없었다. 항상 운동을 많이 하던 나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다.

어느날 왼쪽 손가락이 떨려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주치의의 만났더니 뇌를 MRI를 찍어보라고 하여 찍으니 지극히 정상인 뇌란다. 본래 파킨슨은 MRI로 안 나타난단다.

신경내과 의사를 만나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내린 결과 파킨슨 병 초기라고 진단이 내려졌다. 이병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천천히 하는 게 목표이다. 의사는 가급적 운동을 많이 하라 한다. 평소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여 운동에 대해 부담감이 없어

서 다행이다.

주로 골프, 수영, 요가, 줌바 등 무리하지 않고 움직이니 진행이 천천히 되는 듯하다.

진단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 팔만 떨리고 있어 의사 선생님도 amazing이라 하시며 약 도수도 늘리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하고 늘 운동하는 것이다.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한다.

앞으로 병이 진행될 것에 대해 걱정과 불안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하므로 Well-aging에서 Well-dying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 남가주 이화 거울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합창단



연 습: 매주 토요일 9:30am- 12:00pm
장 소: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지휘자: 석재희 (79) 714-452-7600
단 장: 박영신(64) 213-999-3696
부단장: 백혜란(70) 213-247-4524
총 무: 지희자(74) 323-683-4255

해당화 만발한 그리운 언덕



이영순 (53)

지나간 날들은 다시 올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때때로 그 옛날에 머물곤 한다. 아주 선명하게 그 황홀했던 현장에 말이다.

조개잡이 가시는 아버를 따라 언니와 함께 갯총갯총 뛰면서 따라 갔던 그 해당화 만발한 그 언덕은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따져 보니 그 때가 4살쯤 되었을 때인데 마치 어제 일과도 같다.

그 때 햇볕도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줬다. 언니와 손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해당화 만발한 해당화 언덕에서 마치 꽃 속의 나비처럼 얼마나 즐거웠던가.

화사하게 뽀내며 피어있던 해당화의 자태는 어찌 그리 평화롭고 우아했던지. 하늘도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던 것 같다. 그 언덕에서 평화스럽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그대로 어른거린다.

언덕을 지나면 탁 트인 넓은 바다가 눈 앞에 펼쳐졌다. 그 곳의 모래사장은 마치 보석이 깔린 별판같이 반짝였다.

그 때 아버지는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리고 살살 바다 속으로 들어가시던 젊은 아빠였다. 오염이 없는 맑고 깨끗한 바다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트위스트 춤을 추듯 요리조리 발을 움직

이시던 젊은 아빠가 이따금 조개를 건져 올릴 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서 나는 아빠의 행복을 보았다.

얼마 안가 하나씩 하나씩 바구니에는 탐스러운 조개가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우리 셋은 마치 개신장군 처럼 집으로 향했다.

다시 해당화 언덕을 넘어 집으로 돌아올 때 언니는 머리에 조개 바구니를 이고, 나는 아빠의 목마를 타고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곳은 러시아 경계선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 바로 옆인 함경북도 '서수라' 라는 곳이다. 그 해당화 만발한 언덕 현장의 추억이 선명하게 펼쳐질 때면 가슴이 설렌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꼭 다시 가리라고 꿈꾸었지만 희망을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흘렀다. 조국의 분단이 야속하기만 하다.

아름다운 내 조국, 금수강산. 그 수난의 세월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속에서 그 언덕을 걷는다. 해당화 만발한 언덕에서 그때 그 시절처럼.

-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이영순 칼럼)중앙일보 -

유관순 기념관 후원금



박영애(67) \$2,000 장현주(75) \$7,500 박은란(76) \$800 이영심(76) \$800



이혜리 (56)

가장 가까운 친구를 떠나보낸 그리움

몇 년 전 남편, Dr Lim의 영전에 드리는 글을 썼는데, 이제 너를 보내는 글을 또 써야 하다니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가혹하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다닌 인연이 이어져, 먼 타지 미국 땅에서, 그것도 LA에서 서로 의지하며 인생 후반의 20년을 함께 해온 친구 영숙이. 지가 나보다 석달 먼저 났다고 항상 언니 노릇을 하던 친구.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던 동기 모임 때면 맛있는 과일과 떡을 준비해서 운전 못하는 친구들을 집집이 들러 다 데리고 오던 이화 우버였던 친구, 자식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아픈 후배의 하소연을 매일 밤 전화로 한 시간씩 받아주던 그 사랑과 인내, 어디서 이화 소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맛있는 용수산 식당 음식을 바리바리 사다 주어서 후배들에게도 참 넉넉했던 영숙이.

전망좋은 Pasadena 큰 집에 살면서 때때로 친구, 후배 골고루 초청해서 푸짐하게 대접해 주던 기억, 독립 기념일이 되면 불꽃놀이 구경이 장관이었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숨씨가 좋기도 해서 평생 남편의 저녁식사는 매일 다른 것을 만들

어 드렸다는 말 들었어. 매일 lunch 를 싸 드리고 아마도 남편은 음식솜씨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던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의연하게 잘 견디던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너. 모든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그 집을 떠나 지금 사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서도 마음의 크기는 여전히 넉넉하기만 했어.

옆에서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하겠구나 싶어 내가 half time angel 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더니 이제는 full time angel 이 되어 날아갔네. 그 친구가 이제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한영숙을 마지막 보고 왔는데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들을 수 있다는 말을 믿으며 옆에 앉아 얘기했지요. 두려워말라고.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리운 남편도 부모님도 만날 수 있는 길이니 기쁜 마음으로 떠나라고. 우리 같이 했던 귀한 시간들 돌이켜 보면 모두 너의 헌신이 뒷받침이었다는거 알고 있다



고 고맙다고 했지요.

그러고보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네, 많이 많이 사랑한다 영숙아.

이제 너에게 내 마지막 마음을 전하고 싶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순간들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구나. 너와 나눴던 웃음, 장난, 고민, 때로는 눈물까지도 하나하나 다 선명하게 남아 있어. 우리는 함께 많은 길을 걸었고,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왔어. 그래서 네가 떠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너를 마지막 보고 온 그날 내가 네 귀에 속삭였던 말, 들었을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먼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건 사실 내가 더 많이 위로받는 말이었어. 마지막 순간까지 네 곁에 있을 수 있어서 고맙고, 네 손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



어. 너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싶지만, 네가 내 곁에서 남긴 따뜻한 추억들로 버텨볼게. 네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네가 사랑했던 세상을 조금 더 애뜻하게 바라볼게. 그러니 너도 거기서는 편안하길 바래. 아픔 없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따뜻한 곳에서 나를 지켜봐 줘..

네가 너무 그리울 거야. 정말 많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 친구야.

하지만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친구를 위해, 나도 다시 일어나 보려 합니다. 네가 내 곁에서 해주었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며, 남은 시간이라도 네 뒤통까지 잘 살아내려 합니다.

그리운 내 친구야,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길. 언젠가 다시 만나면 못다 한 이야기, 함께 나누자.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5년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이혜리 (56)

홍정임 (56)

신영숙 (64)

이혜경 (69)

정인영 (74)

봄처녀 제오시네

홍정임 (56)

2025년 5월 꽃피는 서울의 봄날에 홍난파 가곡제 '봄처녀 제오시네'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가곡 100주년의 여정을 시대별, 장르별로 조명하면서 열린 축제로 마련되었습니다.

가곡의 밤 첫 무대를 장식해 주는 홍난파 작곡의 '관현악 조곡' 중 2악장 '봄'(론도)이 난파 필하모닉의 연주로 울려 퍼지자 아름답고 경쾌한 축제의 분위기로 3천여명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5살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이제 88세의 할머니가 되어 이렇게 경사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너무나 꿈만 같았고 감개무량 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저의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국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봉선화를 불러 줄때...

어린이 합창단 이 '풍당 풍당' 과 '개골개골 개골이' 등 홍난파의 동요들을 불러 줄 때 또 다시 눈물이 흐르며 저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버님 홍난파는 일제의 강점기를 살면서 경성방송국(KBS) 양악부 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한국최초로 소규모의 교향악단을 만들어 손수 지휘를 하셨습니다. 장차 대규모의 교향악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명성을 떨치는 훌륭한 연주자들과 함께 60여 명의 난파 필하모



닉 오케스트라가 탄생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가곡과 동요를 사랑하시는 많은 애호가님들과 행사를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서울시에 보답해 드리는 마음으로 난파 가곡제가 앞으로도 오래동안 지속되면서 한국가곡을 부흥시키는 운동에 앞장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서울을 다녀온다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용기를 내어 서울을 다녀오게 된 것이 뒤돌아 보니 큰 의미와 보람이 있었고 아버지께 딸노릇 해 드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56회 친구들의 권유로 '거울' 잡지에 한 corner를 차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거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이화, 그리고 60년 자유·사랑·평화



김정자 (64)

이화동산에서의 6년은 내 인생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화여중·고를 졸업한 지 어언 61년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 속에 가장 깊이 남아 있는 것은 이화에서 보낸 6년의 학창 시절입니다. 돌아보면, 이화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을 인도 해 준 정신적 원동력이자 삶의 뿌리였습니다.

이화는 저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지식보다 더 큰 가치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책임감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화의 정신이었고, 저는 그 정신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청소년기의 제 마음은 때때로 흔들리며 방황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불안과 삶의 방향에 대한 혼란을 겪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화에서 배운 믿음과 인내, 그리고 진리와 자유를 향한 갈망은 언제나 저를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이화의 교정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가르침, 친구들과 나눈 우정, 그리고 매일 같이 이어졌던 예배의 시간은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저를 지지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이화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졸업한 지 어느덧 61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제 삶 곳곳에서 이화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 쉬며 저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가정과를 졸업하고 교편생활 5년 되던 해에 유학생으로 1972년 초에 미국에 오게 된 남편을 따라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고, 삶의 기반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

나, 그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화의 정신-진리와 자유를 향한 열망,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36년 전에 의료 기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작은 출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인 타운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가정용 의료 기구와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네 자녀를 대학 보내고 결혼도 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 올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다름 아닌 이화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마음,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준 용기, 그것은 모두 이화가 제 마음 속에 심어 준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낯선 땅에서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바탕에 이화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화에서 배운 당당함과 굳굳한 정신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포기하지 않는 용기, 정직,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이화의 정신은 제 삶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화에서 배운 지식과 신앙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제 삶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리는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 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월의 강물이 심 없이 흘러 60여 년이 지나왔어도, 모교를 향한 사랑과 감사는 조금도 변함없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모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Chronicles of my 60th 이화 Reunion

한은지 (65)

Though I haven't been back to Korea in many years, I recently had an opportunity to return to Seoul with my husband, Tony. We visited the 이화 middle school, which is now a museum, where we sat in the very classroom I sat in as a student! The room, desk, and chairs were all so small and so many wonderful memories came flooding back. Sometime later, I learned there was a kakaotalk group: 이화 '65 단톡방 and I was invited to the annual Christmas party being held in Los Angeles. I attended this party where I learned about the upcoming 60th anniversary reunion in Seoul. Having never attended a reunion before, this seemed like the perfect opportunity. Here are the highlights of my trip.

From the moment I arrived at the Incheon airport, I was greeted by one of my dear friends, 윤병주. The following day, I was invited to a fabulous luncheon that my college classmates had arranged for me when they learned I was coming to the reunion.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we had seen each other in over 50 years. We

hardly recognized each other! We quickly became re-acquainted and everyone shared about their lives since graduation. It was so wonderful to catch up. As luck would have it, my son Michael, who happened to be visiting Seoul on a business trip at the same time, accompanied me as well. What a joyous start to my trip!

On the first official morning of our reunion, we all met at the Plaza Hotel. The event began with a 감사 예배 that we are all here together on our 60th anniversary since our graduation. We were all warmly welcomed by the alumni chairs as well as the current high school principal. We were served a sumptuous multi-course luncheon while we were entertained by a wonderful violin soloist and a very enjoyable 난타 performance by members of our class of '65. Lastly, we were adorned with golden tiaras and sashes and photographed on stage like beauty pageant contestants. It was glorious!

On Tuesday, our group gathered at 이화 high school,



donned out yellow cutie bird headpieces, and boarded several buses that took us to Lakai Sandpine Resort in 강릉. In the evening, we attended an entertainment-filled dinner that was emceed by the funny and clever 이인순. Each class table formed a team that was challenged with trivia questions and prizes were awarded. It was so much fun!

When dinner ended, my entire suite partied late into the night in a very lively manner and had a blast. It was a fantastic day!

The next morning we had a wonderful breakfast, walked on the beach, and took photos together. We boarded buses for our journey home. We visited the founding president's summer home (이승만 기념관). Many of us expressed gratitude and were deeply moved reflecting on his extraordinary contributions and accomplishments.

On Thursday, we traveled to the DMZ and a feeling of eeriness overcame us as we walked in the very same tunnel once used by spies. We also visited other remnants of the war in the city, but the tunnel left the greatest impression. That evening, all the students and alumni gathered at 노천 극장 with candles and had 햇불 예배 around the lit cross led by the school chaplain.

On Friday, May 30th, 이화 High School 창립 기념식, the entire school and alumni gathered at 유관순 기념관 to celebrate its 139th anniversary. Many school officials spoke and awards were given by our beautiful alumni chairwoman 이은숙 to distinguished and dedicated 이화 members for their accomplishments. After the ceremony, lunch was prepared and served by the 이화 student body. The class of '65 then gathered around 유관순 우물가 계단 where we said our fondest farewells to one another. I also visited my ancestral gravesite in 천안, to say goodbyes, especially to 엄마.



What an amazing time I had on this trip, which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hard work and dedication it took from those who organized this reunion!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all those who worked so hard to make this event come together so well and to all those who treated me so kindly.

I hope these chronicles convey the camaraderie, love, and relationships that began at 이화 동산, where I believe God brought us together to become life-long friends. It truly was a privilege to be part of the very prestigious history of our school. I hope with all my heart that we age well over the upcoming years and that we meet again to celebrate another reunion! Please stay healthy, strong, and keep 진선미!



정덕주(66)

Tomorrow is not my day !

2023년 1월 LA에 연일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 남편은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비와 함께 내 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겼다. 2025년 1월에는 엄청난 산불이 남가주 여러 곳을 삼켰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으로 하루 아침에 잣더미가 되어버린 삶의 터전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천사의 도시는 어느새 한숨과 눈물로 가득 찼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고 AI와 Chat GPT 등 현대 문명이 가속화되는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눈 앞에 벌어지는 기막힌 현상을 보며 참으로 무기력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 옛날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 땅위의 호홉있는 모든 생물을 물로 쓸어 덮으셨듯이 이제는 끝없이 타락하는 인생들을 불로 태우실 창조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게 된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남편의 마지막 인사말을 들으면 서도 바로 이틀날 死別하게 될 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나였다. "Tomorrow is not my day !" 주일 오후 교회가 제공하는 lyft

택시안에서 기사님들에게 전하는 나의 짧은 message이다. 살아 숨쉬는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년이면 이화여고 졸업 60년을 맞는 나이가 되었다. 이화학당 입학으로 3년 혹은 6년 아름다운 배꽃동산을 거닐 수 있는 학생증을 얻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여정을 마친 후에는 오직 예수 믿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특권이 기다린다. 이 세상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이 화려한 천국 동산에서 황금길을 거닐 수 있는 신분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27 말씀이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합격통지를 받는 축복이 이화의 딸들과 자녀손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GOD BLESS YOU !!



2025년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63 Orange County 동기 일동

오늘

이민자 (61)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놓고
오늘은 오늘로써 행복하라."는 프랭클린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 곱씹어가며
후회하거나 고민할 때가
가끔씩 있다.

'그때 좀 더
그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집착하다가

지금 우리 앞에 온
새로운 기회조차 놓치고 만다.

무심하게 흐르는 강물,
물이 흐르는 대로 맡겨놓으면

새로운 물결이
또 다가오고 흘러간다.

오늘도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확 트는 것입니다!" (고후5:17, 메시지 성경)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에
그러니 흐르는
대로 흘러보내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5 제 24호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권선희 (75)

LICENSE NUMBER OH00486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5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이화 졸업 55주년 기념 여행기

김춘영 (70)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행복을 가득 안고 돌아온 70이 훌쩍 넘은 우리들의 이야기.

올해 5월은 70년도 졸업 동기들에게 특별한 해였다. 매년 5월 30일 졸업 30, 40, 50, 60, 70주년 재상봉 행사를 학교에서 마련해 주지만 우리의 50주년 행사는 팬데믹으로 갈 수가 없었기에 이번 창립 139주년 기념식과 함께한 55주년 행사는 더욱 뜻깊었다.

LA, San Francisco, New York, Chicago, Minnesota, Seattle, Japan에서 온 해외 동문 27명 중 17명이 미리 도착하여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많은 사원,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

께하는 즐거운 시간속에서 행복한 태국여행을 만끽했다.

5월 26일 - 한국의 동기들과 함께 100여 명이 관광버스 4대로 서울-구례-하동-통영-거제-통영-진주-서울로 이어진 수학여행 같은 여정을 보냈다.

첫째 날은 박경리 작가의 "토지"의 주무대인 하동 평야와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최참판댁을 둘러보았다.

통영에서는 아름다운 Ocean View 가 있는 방 덕분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베란다에서 눈부신 바다와 해돋이를 만날 수 있었으며 거제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유로운 바다내음과 바람을 즐기며 도착한 47년 만에 개방됐다는 저도의 대통령 별장에서의 자유로운 산책도 오랜동안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으리라.

저녁 연회 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 장기자랑, 멋진 노래, 광란의 춤으로 마음은 옛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한 친구들도 있었고 반가운 얼굴을 확인하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친구 한 명은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짝이었으며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어 함께 웃기도 했다.

60년 전의 일이 아닌 것처럼.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떠올랐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싱그럽게 잘 가꾸어진 진주의 경남 수목원에서의 산책로를 걸으며 새소리보다 더 즐거운 친구들의 웃음소리, 자연의 숲 내음이 지금도 맴돈다.

일정마다 이어진 맛있는 식사 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임원들의 수고의 손길과 넘치는 정이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와 다음날인 5월 29일엔 '졸업 55주년 재상봉 오찬 모임'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5월 30일 - 개교 기념일 행사에서는 우리의 기대표 송묘령이 가이화를 빛낸 상 봉사 부문에 수상을 했음에 축하하고 이번여행

내내 세심한 계획과 배려 속에 진행돼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낸다.

바자회를 둘러봄도 즐거웠고 같이 여행하지 못한 친구도 졸업 후 처음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신기한 것은 얼굴은 낯선데 목소리가 기억됨도...모두가 벌써 그림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우정의 향기를 오래도록 간직하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함께 했던 모든 추억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한다.

이 모든 추억을 준비해 준 한국의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25 제24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Ewha Chorale / 이화코랄



연 습: 매주 월요일 10:30am-1:00pm
장 소: 승리 장로 교회
4213 Monroe St.
Los Angeles, CA 90029

지휘자: 강영옥(69) 213-500-1829
단 장: 서병희(65) 213-700-8417
부단장: 송혜성(67) 213-595-3535
회 계: 문정인(69) 총 무: 정윤희(91)

재능과 열정을 함께 나누실 동문을 초대합니다



장현주 (75)

50주년 재상봉에서의 2박 3일 증도여행

두 갈래로 머리를 따고 다니던 학창시절에 난 단 한 번도 50년 후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 졸업 50년을 맞아 동창들과 재상봉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1979년 미국으로 떠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누구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다. 그리고 5월 25일 주일 아침 양재역에 도착하며 그 여정은 시작되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일정은 2박3일간의 증도 여행이었다. 리무진 투어버스 다섯 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4번 버스에 올라타 내 좌석에 앉았다. 제반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상속이가 내 옆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여행 내내 단짝이 되어 동행했다.

첫 휴게소인 보령의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중 낮익은 얼굴이 다가오며 "현주야!" 하고 불렀다. 뜻밖에도 영애였다! 생각지도 않았던 영애와의 만남에 난 너무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다. 이어 예전 모습 그대로인 지영이도 합류하면서 우리 추억 속의 얼굴들을 하나둘씩 떠올렸다. 모두가 중고등학교를 함께했던 친구들이었고 우리는 오래된 추억들을 더듬어 나갔다

점심은 보령의 조개사랑 식당에서 직접 구워 먹는 조개, 전복, 가리비, 새우 등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한 식탁이었다. 그 맛은 오직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었다. 이후 방문한 '상화원'

은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절경의 정원으로 지금도 그 풍경이 눈에 선하다.

저녁식사는 매콤한 빨낙지 볶음이었고 다시 한 번 한국의 바다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여행의 목적지, 전남 신안군의 증도에 도착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 벌써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도 해변을 걸으며 멋진 풍경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뜻밖에도 대학 동창들과도 마주쳐 반가움이 배가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니 그야말로 인생의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었다.

저녁 연회장에서는 풍성한 부페와 레크레이션이 펼쳐졌다. 현지에서 초빙한 진행자는 약간의 촌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유쾌한 입담으로 우리를 웃게 했고, 게임과 노래, 춤이 이어지며. 우리는 18세 시절로 돌아간 듯 하나가 되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염전과 갯벌 생태 체험, '태평염생식물원' 그리고 소금 카페를 들렀고 문준경 전



도사님의 기념관 방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스크랜턴 선교사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된 이화여고, 우리는 그 은혜의 결실이라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규율 부가 없던 유일한 학교, 지각하면 수위실에 들러 스스로 이름을 적고 들어가던 학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자율과 절제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 채플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내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며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의 빛진 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랑스런 이화여고!
앞으로도 우리 모교가 자유 사랑 평화의 기상으로 한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나는 옛 친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연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 아쉽지만 따뜻하게 맞아준 모든 친구들 - 상숙이, 희창이, 옥순이, 애선이, 승희, 시열이, 경은이, 수재, 선미,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친구를 방문하는데 기꺼이 라이드를 제공해 준 혜주까지 - 모두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이 아름다운 여행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대한다 10년 후 우리의 60주년 Reunion을.

“친구들아, 그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나자. 이화인의 변함없는 우정과 사랑을 다짐하면서...”

가족처럼 친절과 성실,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분들께 정성껏 봉사하는

DOWNEY 가주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꼭 가격을 비교하여 보세요!
가주장의사는 매장, 화장, 묘지주선, 이장, 장례보험등 장례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강은주 (72)



FD-1648



대표: 정영목 목사(Rev. Yung M. Jung)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Tel. (562) 622-9393
Fax. (562) 622-4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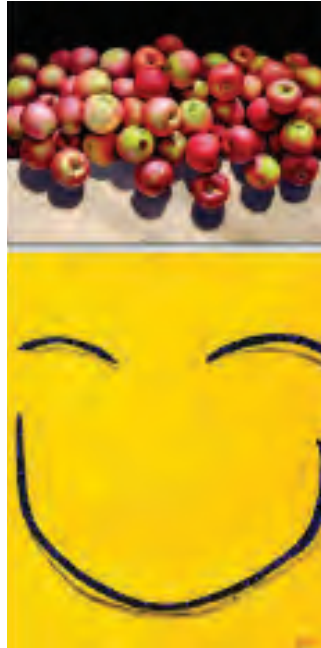
망막 뒤에 남겨진 한가지 영상 - 표현에 관하여 -

서효숙 (75)

수년 전 인사동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이목을 화백' 초대전을 한다는 안내의 글을 접한 적이 있다. 우선 첫눈에 들어오는 '스마일' (사진 하 참조)이라는 작품 이미지를 보면서 "아, 이건 또 뭐야? 이런 작품으로 초대전을 한다고?" 몇 초 동안 현대미술의 문제점들을 떠올리며 그 아래 짧게 적혀있는 작가와 작품소개를 읽어 내려갔다. 그 때 그 단순한 작품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작가의 마음이 몽클하게 다가오며 나의 선부른 판단을 후회하게 되었다.

안내의 글에는, "중견작가 이목을 화백은 극사실주의(Hyper Realism) 선두주자로서 원래 생생하게 대추, 사과, 감 등을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리면서(사진 상 참조) 우리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시력이 점점 약해져 한쪽 눈은 이미 실명하였고, 남은 눈도 점점 시야가 흐려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화백의 신작 '스마일' 시리즈는 이전 작품들에 비해 매우 극단적으로 변한 듯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작가의 심경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작가는 시력상실로 겪는 고통을 승화하여 본인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웃자라며 소탈하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보여 준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우리 가족은 미국 이민 후 지금까지 거의 스무 번에 달하는 많은 이사를 해야 했다.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정착 후 어느샌가 보면 또 자질구레한 물건들과 옷가지들이 쌓이곤 했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라는 핑계를 대곤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 보다는 소소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작은 것에 집착하는데서 이런 모아두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은 잡다한 것들이 내 인생의 공간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새삼 느끼고 있던 그즈음에, 이목을 화백의 '스마일'과 같은 극히 단순해진 그림은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한 충격이었다. 이목을 화백은 사실화들을 그리면서 긴 시간 동안 작고 섬세한 무수한 점과 선들과 씨름하며 작업을 했으리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묘사를 위해서는 점 하나 하나를 위해 붓끝에 초점을 맞추는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던 분이 자신의 재능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단순한 스마일 형상만을 화폭에 남겼다는 것은 그에게는 정말 과감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것저것 다 필요없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라고, 그것이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해주는 명약이라"고 전하는 그의 메시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절박



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미국의 표현주의와 팝아트의 선두주자였던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가 생각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자연,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순수함을 표현하기 위해 "백색 회화(White Painting)"라는 작품을 탄생시켰다. 복잡하고 뭔가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작가들의 감정을 표출해내는 것 같았던 당시의 표현주의 그림들, 그 속에 도전하듯 던져진 이 침묵과 같은 백색 그림들 앞에서 처음에 사람들

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모양이나 흔적없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된 백색이나 검정으로만 칠해진 이 그림들이 오히려 더 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하시던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해 동안 알츠하이머라는 몹쓸 병을 앓고 계셨다. 어린 아이같이 변하시면서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무상을 가슴저리게 느끼곤 했었다. 그래도 그중에 감사했던 것은 엄마가 늘상 달고 살았던 무수한 잔근심들이나, 자녀를 셋이나 잃었던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은 다 없어지고 단 한가지,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남았다는 점이었다. 엄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시곤 했다.

과연 나의 눈의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다면 마지막으로 망막 뒤에 남겨질 단 한가지 영상은 무엇이 될까? 만약 모든 기억이 지워졌을 때 나에게 남겨질 마음은 어떤 것일까? 남겨지고 싶은 그 한 가지 마음과 영상을 작품 속에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미술의 표현이고 참 작가가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오늘 웬지 많은 소소한 것들에 묶여 있었던 한쪽 마음이 슬며시 풀려지는 듯해서 "스마일"을 한번 지어본다.

- (Piety Choi)의 미술칼럼 시리즈 중에서 -

라이프 의료기구용품

웨스턴
3가

의료용품

환자용 전기침대/사위 의자/휠체어/지팡이
노인용 기저귀/의료용 압박 스타킹
혈압기/혈당 검사기
간호원 유니폼/Table Paper



Insurance



기능성 특수 신발, 당뇨인을 위한 특수신발

대표: 김정자

이화여중 이화여고 졸업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양학과 졸업
영양사
NCPA Certified Orthotic Fitter
BOC Registered Orthotic Fitter



간호원 유니폼 세일



LIFE MED



Accredited by
Joint Commission

Business Hours: Monday-Friday 9:30 Am-5 Pm Saturday 10:00 Am-3:00 Pm Sunday Closed

TEL: 213-385-9133

FAX: 213-385-3121
lifemed333@gmail.com



정영옥 (76)

우리들의 성경 통독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한 팬데믹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우리 76기 동기들이 못 만나고 있을 때 은란이의 제안으로 10여 명의 친구들이 줌(zoom meeting)으로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다. 여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간 친구도 있고, 서울과 미국을 오가며 사는 친구들도 있다. 숨통이 트였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 어느덧 4년 반이 흘렀다. 매일 저녁 9시에 시작하는데 잠깐 일상의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영상은 끄고 음성만 들으면서 편안한 차림으로 읽는다. 40분이 다 되어가면 줌(zoom meeting) 화면에서 시간이 다 되어가니 끝내라고 한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친구들은 졸음을 참아가며, 운전 중일 때는 듣기만 하기도 하고, 딸네 방문 중인 친구는 어린 손자 께봐 화장실에서 읽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읽어 7번을 통독했다. 한 번 통독하는데 5개월 정도 걸렸다. 마지막으로 읽은 친구가 누가 어디까지 읽었다고 카톡에 올려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제 일인데도 기억을 못 한다. '누구 아니니?', '나니?', '몰라', '그런가?', '기억 안 나' 하면서 난리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실감한다.

작년 7월부터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1~2장씩 자세히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궁금해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을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 여러 번 읽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뜻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주석을 찾아보고, 지도도 찾아보고, 역사도 공부하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새가 먹이를 물어오듯 여기저기서 물어와서 친구들에게 서로 나눠준다. 친구들이 물어온 먹이를 얻어먹고 우리 모두 자라나고 있다.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각자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나누고, 처음 믿을 때 자신의 영혼을 흔들려 깨운 말씀을 기억해 내서 나누기도 한다.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었기에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외유내강이다. 속이 딱 차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단단하다. 내 나라 떠나 멀리 날아와서 힘든 시간 잘 헤쳐 나온 모든 76기 친구들이 참 자랑스럽다.

하늘나라 가면 성경 공부도 필요 없을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알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다. 성경 통독 반 친구들, 그리고 이 모임에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76기 친구들, 우리 Well-aging 하고 있는 거 맞지?





Mi Cafe

8:00am-8:00pm (Mon thru Sun)

📍 2879 W. Olympic Bl. #201
Los Angeles, CA 90006

☎️ 213 • 460 • 2588

📷 micasfe_inc



M Spoon

9:00am-8:00pm (Mon thru Sun)

📍 2789 W. Olympic Bl. #104
Los Angeles, CA 90006

☎️ 213 • 460 • 3535

📷 mspoon_inc





김미례 (75)

70을 바라보며 혼자 여행을 떠나다

작은 딸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남편과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싸서 여행을 시작하였다. 여행사와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둘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걸어서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35개 정도의 나라를 여행한 것 같다. 말이 안 통하는 버스 운전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어렵듯이 짐작하여 탄 버스가 과연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까하는 긴장감을 즐기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흐뭇한 성취감으로 혼자 미소짓곤 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둘이 여행사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찾아 찾아 다녀왔나 싶기도 하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유럽은 그만 가고 싶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가고 싶은 곳이 남아있는데... 남편이 안 간다니 나도 가지 못하나, 아니면 혼자라도 가나? 나는 과감히 혼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위의 반대가 심했다. 젊지도 않은 나이에 여자 혼자 어떻게 가냐는 것이었다. 어떤 친구는 화도 내었다. 어떻게 식구들을 걱정하게 만들면서 갈 수 있냐고..

Plan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목적지는 Qatar, Istanbul, Belgium, Amsterdam이었다.

비행기 연결 시간이 좋지 않아 Istanbul에서 내려 Black Sea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하루 묵기로 하였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Black Sea 해변가를 걸으며 가족을 떠나, 혼자라는 미묘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로 설레는 나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 Qatar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Qatar의 수도 Doha에 내려 호텔에 도착하니 시간차로 이미 어두어진 저녁이었는데 바로 밖으로 나가 역사 깊은 souq (시장)으로 향해 걸었다. 날씨는 후덥지근하게 더웠고 Ramadan이 바로 끝난 후라 사람들로 많이 붐볐다. Doha는 너무나도 깨끗하고 도시 디자인과 건물 디자인이 창의적이고 아름다웠다. 가로등이 야자수 나무, 나뭇가지,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어 밤에 불이 켜진 길은 장관이었다. 더운 날씨 탓인지 낮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았다. 나는 양산을 쓰고 Persian Gulf를 따라 만든 해변길을 걸으며 museum park에 세워진 조각품들을 구경하였다. Doha의 museum은 정말 인상깊고 감동적이었다. 특히 Museum of Islamic Art는 독특한 외부 건물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 디자인도 전통적 Islamic 디자인 요소와 현대 디자인 요소를 같이 접목시켜 작은 코너까지 빼놓지 않고 여러모로 신경써서 지은 듯 했다. Loure 박물관 앞의 Glass Pyramid를 디자인한 I.M. Pai가 Persian Gulf 물가에 세운 이 museum은 방대한 Islamic Art의 collection을 전시하고 있는 단연 세계 최고의 Islamic Art Museum으로 불려진다. 나는 Metro를 타고 다녔는데 최첨단의 metro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Dubai metro에 여자칸과 남자칸이 나누어져 있던 것과는 달리 Doha metro는 1등석과 2등석이 분리 되어 있었다. Qatar의 인구중 시민은 11.6% 밖에 안되고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 88.4%가 된다고 한다. 근사한 디자인의 National Library에서 calligraphy 전시를 보고, university complex와, 민속촌도 구경하였다. 하나하나 세세한 신경을 써서 세운 의지가 엿보였다. 밤에 중



동지역의 전통적인 배 dhow
을 타려고 나갔는데 배를 타
려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할까 주저하고 있었
는데 한 배 주인이 타겠냐고
하길래 타겠다고 했다. 나의
이 겁없는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지? 1시간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잔잔한 파도를
타고 갖가지 색으로 불 비친
도시의 아름다운 skyline을
구경하였는데 나는 그 큰 배
에 탄 유일한 손님이었다.



Istanbul로 돌아와 Blue Mosque와 소피아 성당(지금은
mosque가 되었다) 사이에 위치한 호텔에 짐을 풀었다. Istanbul은 이미 와 보았던 곳이지만 혼자서 걸으며 이곳저곳 들어가고 싶은 곳을 맘대로 다시 구경할 생각을 하니 신이났다. 첫날은 비가 꽤 많고 비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니 mosque에 들어가도 옷차림에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머리에 스카프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Istanbul은 매 block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mosque가 많고 역사의 자취가 가득한 곳이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곳이다. 각 mosque마다 다 특색이 있고 color scheme도 달라서 매번 들어갈 때마다 흥미롭다. 한 mosque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었는데 예배가 시작하니 여자들이 예배보는 이층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워 얼른 이층으로 올라가니 웬걸 mosque를 내려다 보는 view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Blue Mosque에서는 volunteer들이 관광객 상대로 이슬람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 열심히 듣고 조심스럽게 질문도 했다. 그때 마침 영국에서 이슬람 학교의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 동그랗게 모여 아랍어인듯한 언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무슨 노래냐고 물어보니 'God is Good'이라는 노래라고 했다.

Tram을 타고 Greek Orthodox 사람들과 Jewish 사람들이 모여사는 동네를 가 보았다. 점심을 먹으러 조그만 식당에 들러 직접 만들어 구어주는 큼지막한 pancake같은 것에 시금치와 치즈를 넣은 것을 시켜먹는데 일하는 29세 청년이 말을 걸었다. 자기 월급가지고는 살기가 힘들고 결혼도 못 할 것 같다고 한탄스런 소리를 한다.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느낀걸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내가 묵고있는 호텔 주인은 똑같이



29세 였는데 호텔을 늘릴 생각에 희망에 부풀어 있어서 두 청년이 비교가 되었다. 청년의 딱한 소리를 마음에 담고 Golden Horn 물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걸었다. 건다가 힘이들어 tram을 타고 가다, ferry를 잡아타고 Bosphorus 해협을 건넌후 막 뛰어서 다시 반대로 가는 ferry를 잡아타고 돌아왔다. 이런 것이 혼자 가는 여행의 묘미이랄까? 누구와 상의 할 필요도 없고 즉흥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고,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묘한 해방감이다.

주위의 염려를 무릅쓰고 결국 한번 해보고 싶던 홀로 가는 여행을 하면서, 내 추억을 담아놓는 책에 한 쪽이 더 추가 되었다. 이것저것 걱정하며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해보고 싶은 것을 행동에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접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떠나는 여행같이 살아간다면 더 풍성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다.

LAX에 도착하니 남편이 반갑게 맞아준다. 그리고 곧 Iceland에 같이 가잔다. 혹시 이 여자가 어딘가로 또 혼자 떠날까 싶었는지..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 헬렌입니다. 현재 저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간호학과와 Honors 인문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대학 1학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동안 저는 학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재정, 그리고 신앙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개의 전공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시간과 책임이 많이 따랐고, 학업적인 스트레스 외에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지고, 부모님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하시면서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어갔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학교의 많은 멘토들, 특히 생리학 교수님께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성경 이야기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이 울림을 주었고, 저는 그 여인이 바로 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며 주님께 나아간 그 여인처럼, 저도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저의 소중한 것들, 꿈과 상처를 내려놓고 싶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죄인으로, 잃어버린 영혼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과 변화 속에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의 "향유 옥합"을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제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제 삶의 간증이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저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공급이자 계획의 일부임을 증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이 제 삶의 간증에 더해졌다는 것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감사의 표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제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의 삶과 제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이 세상에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는 많은 변화 속에서 2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로도 함께해주실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모님께서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과정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둘째, 올해 학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셋째, APU 예배 밴드의 일원으로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저의 신앙과 주님과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정혜원 올림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관계자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의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 최선하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학업과 미래를 응원해 주신 동창회의 따뜻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사 자녀로 평생 타지에서 지내며 낯선 환경에서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며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낯선 한국 땅과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서 '누군가 나의 여정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대학원 진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제가 받은 이 귀한 응원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역시 언젠가 누군가에게 같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선하 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이화여중고 남가주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하은입니다. 이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김세은 회장님, 박은란 총무님, 그리고 정애수 장학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쓴 에세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어릴적 여러나라를 옮겨다니며 살아서 외모와 언어가 달라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온 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가 제 마음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힘과 용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biomedical engineering 전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구와 장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기능을 넘어,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돕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담고 싶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제 진로와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받은 사랑과 응원을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기회와 믿음을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Dear Ewha Alumnae Association,
Thank you so much for awarding me this scholarship.

I am very proud to have this connection to Ewha, and fulfill my education as my grandmother and her siblings did at Ewha years ago. I attended an alumni event in Seoul earlier this summer. Even though my grandma passed, watching her peers made me feel as though her spirit was there with us.

I cherish all that Ewha has done for me and my family.

With gratitude,
Hannah Sung

이화코랄

전안복 (74)

나이가 들어가는지... 요즘 부쩍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된다. 아마도 연습장소를 예전에 다니던 승리교회로 다시 옮긴 까닭인 듯도 하다. 다정한 후배의 손에 이끌려 승리교회 코랄 연습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지 벌써 15년이 훌쩍 넘어갔다. 1978년에 미국에 오고, 나보다 먼저 오신 언니, 부모님과 함께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의 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가느라 아주 바쁘게 살아왔다. 결혼하여 아들 딸 나아서 기르며 직장생활에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에 변함없는 일상으로 채워졌던 어느날... 내게 신천지가 열렸다.

꿈에도 그리던 합창을 하게 된 것이다. 합창부로 노천극장 예배시간에 앉아있던 그 싱그러운 소녀의 모습으로 앞, 뒤, 옆에서 선후배가 고운 화음을 넣어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선율에 얹어진 목소리는 몇십년의 세월을 완벽하게 거슬러 그때, 그소리였다. 그날부터 쏟아지는 사랑과 관심에 몸둘바를 모르면서 이화코랄에 올인 하게 되었다. 강영옥 지휘자님의 때로는 고된(ㅎㅎ) 연습도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고, 그사이 쌓아져 가는 단원들



과의 정은 친자매 보다도 더 깊어졌다. 동창회에 참석하면서 잊혀져 가고 있던 한국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

지고 동기들도 만나게 되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여 무대에서 공연을 마친후의 감격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욕심 많으신 지휘자님과 한마음으로 열성인 단원분들 덕에 참으로 여러 장르의 오페라와 뮤지컬 무대까지 섭렵하며 오늘의 코랄이 만들어졌음을 돌아보게 된다. 연습시간에 권사님 소리 내지말라는 지휘자님의 구박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요즘... 그래도 기죽지 않는 올 단원들은 한살이라도 젊은(?) 소리를 찾아, 지휘자님께 보컬 트레이닝 특강까지 받으면서 앞으로의 공연 연습에 남은 청춘을 불사르고 있다.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온 코랄을 믿고 오셔서, 더 많은 동문들의 목소리와 재능을 함께 모아 무대를 준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십년이 넘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코랄에 이런저런 일도 많았다.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한 일, 힘든 일 등등 ... 지나고 나니 아쉬움도 많다. 큰 선배이신 65' 서병희 단장님을 선두로 67' 송혜성 부단장님, 69' 문정인 회계님, 총무를 담당하는 91학번 막내 정윤희 후배를 구심점으로 이제는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이끌어 주는 성숙한 코랄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고 있다.



이화여고동창 합창단

김미혜 (77)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LA의 VERMONT길과 1가 쯤에 위치한 미주평안교회의 한 방에서 웃음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시간부터 오후 1시 반 정도까지 일주일만에 만나는 동기, 선배님들의 만남과 소리의 화음은 1주일 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게 된다.

박영신 단장님(64), 백혜란 부단장님(70)과 지휘자 총무님(74), 오은경 회계님(74)등 임원을 맡으신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함께 이화라는 이름으로 어우러지는 화음을 만들어 내는데 모든 합창단원들이 힘을 쏟는다.

감동적인 화성과 마음을 울리는 가사의 노래들은 우리를 매주 합창단으로 불러 모으는데 부족함이 없다.

석재희 지휘자님(79)와 반주를 맡은 헬렌 박 반주자님의 화합은 또 어떤가. 보기 드물게 서로를 위해 주며 격려하는 두분을 보면 아, 이런 것이 하모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소리만 모으는 것이 아니다.

매주 맛있는 아침 간식과 때때로 만나는 맛있는 별미 식단에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마음을 모으는 일을 위해 지난 4월에는 데스칸소 정원으로 소풍을 다녀오기도 했다.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데스칸소의 자연을 즐기면서 단원들 간의 친목을 다졌으며, 근처에 자택이 있는 신 김춘영 선배님(70) 댁을 방문해 다과를 대접받기도 하였다.

매주 연습시간 전에 중고물품 시장을 열어 나에겐 지금 필요 없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며, 기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동창 합창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에는 배재합창단과의 정기연주회 일정이 잡혀 있고, 11월 8일에는 미션 스쿨 음악제에 참여하고, 예년처럼 12월 6일에 있을 이화동창회 송년모임에서 합창을 선사할 예정이다.

우리는 소리의 화음을 위해 합창단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나 하나 꽃 피어'의 조동화 시인의 가사처럼 나 하나 꽃 피어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의 모든 상황을 아름다운 화합으로 이끌 수 있다면, 보다 빛나는 꽃밭같은 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가져본다.



이화 배재 음악회

고혜경 (76)

9/27/2025

오늘 음악회 참 좋았어요. 여러분이 함께 마음과 열정을 모아 합창하는 아름다운 음악과 손에 꽃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응원하러 오시는 연로하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친구들! 특히 토요일 오후 바쁜 일과 중에 시간내어 함께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가슴 뭉클하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음악회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곡 하나 하나 마음에 와닿아 마음을 울렸고 찬조출연하신 Calvin Park, Joanna Kim의 수준 높은 음악은 감동을 넘어 우리를 전율케 했습니다.

간단한 다과 정도의 서빙으로 예상했던 음악회 후 음식은 뷔페 수준으로 푸짐했어요.

예쁘게, 정갈하게 하나하나 일인분 양으로 김밥, 떡, 과일, 토마토 치즈 올리브 오이 꼬치, 빵을 각각의 조그마한 접시에 담아 약 250명 분을 준비했어요.

(우리76기 동기들은 김밥과 떡만)

음식 분배는 일사천리로~~~



모두 돌아가신 후 마지막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마치니 온 몸이 약간 축축한 듯!

아~ 우리가 열심히 했구나!!

선배님들께서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해 주시고! 서로 덕담오가고!! 함께하며 기쁨의 경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악회 참 좋았어요!!



이화 걷기반

백혜란 (70)

올해가 걷기반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곤 하지만 저희 걷기반은 꾸준히 빠지는 분 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같은 산길을 올라가고 같은 장소에서 피크닉을 하지만, 전혀 지루함도 없이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산행하는 코스도 셋으로 나누어, 평지 걷는 팀과 2/3 정도 올라가는 팀과 정해진 장소까지 갔다오는 팀 이렇게 각자 컨디션에 맞추어 걷고 내려와 기다리던 피크닉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피크닉 준비도 3조로 나누어 부담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아주 추운날이나 비오는날에는 식당에서 외식도 하지만 역시 피크닉이 자유롭고 재미있답니다.

각자 일주일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좋은 정보를 교환하고, 가끔은 특별한 생일파티도 열고 즐거운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매주 산행은 Griffith Park으로 가며, 걷기반 모이는 장소는 웨스턴 길을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오다 왼쪽(Fern Dell)으로 들어와서 조금 올라오면 왼쪽에 Trail Coffee Shop이 보이는데 그 건너편에서 매주 목요일 7시 반에 모입니다.

이화 걷기반 동아리에 동창 선후배님들을 모두모두 환영 합니다.



라구나우즈

이의정 (69)

새로 태어난 동창회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은퇴 마을(라구나 우즈)에 사는 34명의 동문이 모였습니다.

'52 졸업부터 '76 졸업까지 연령도 다양하고, 학교대표 수영선수(강명숙), 국가대표 스키선수(채숙영), 음악 선생님(서경선) 등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계십니다.

저희는 격월로 만나며,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외부강사 초청으로 Hospice와 Home Care에 관하여 특강도 들었습니다.

이화 선후배가 좋은 이웃이되고, 존경받는 시니어로 아름다운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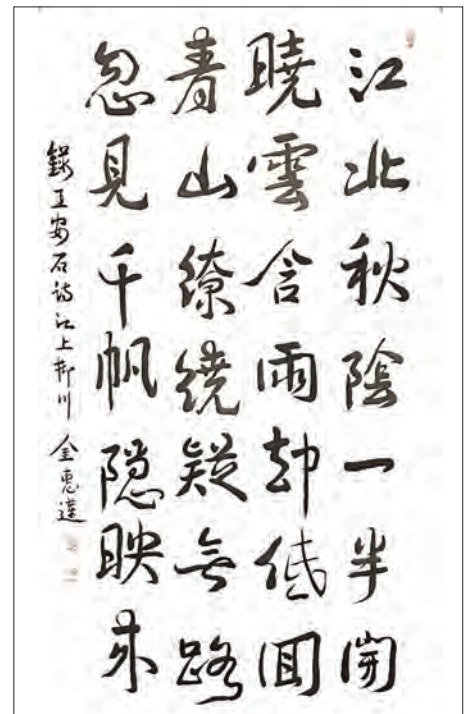


김혜련(57)

저는 '57 이화여고 졸업생이고 연세간호대 '61 졸업하고 5년 전에 라구나우드에 이사 와서 광병희 스승이 지도하시는 취묵헌 서예반에서 삼 년째 지도 받고 있어요.

훌륭한 스승님의 지도로 입선의 영광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광 스승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화 아름다운 이화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Huntington Library

5/8/2025

76기가 새롭게 동창회를 맡은 후 첫 번째 문화탐방 Program 으로 Huntington Library 를 방문하였습니다.

박은란 총무가 총괄하고 계획하여 사전답사와 Ticketing, 런 치준비 등등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날씨 또한 화창하게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화 동문들 모두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귀한 미술 작품들과 아름다운 정원을 감상하고 만끽했습니다.

사이사이 박학다식한 선배님들의 작품설명이 곁들여져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한 봄소풍 이었습니다.



Hollywood Bowl

8/5/2025

2025년 두 번째 문화 탐방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아들 조성진 Concert 를 다녀왔습니다.

조성진은 음악예술 감독 Gustavo Dudamel 이 이끄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어 Ravel 의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과 '피아노 협주곡 G 장조' 를 훌륭하게 연주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성자 부회장이 이번 행사를 준비했는데 연주회 Ticket 뿐만 아니라 Bus Ticket 까지 신청받고 예매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80개를 pick up 해서 Hollywood Bowl 까지 날라오겠다며 앞뒤 가리지 않고 선뜻 나서 준 조희옥...그 모습을 보며 아무래도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라는 걸 빠르게 간파하여 자진해서 Join 하여 함께 도시락을 공수해 온 회계 윤원선.... 윤원선은 이 뿐 아니라 70명의 음악회 회비 정리까지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에 이화 동문 70명이 Hollywood Bowl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고 피아노 연주 감상하며 아름다운 한여름 밤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골프

신호정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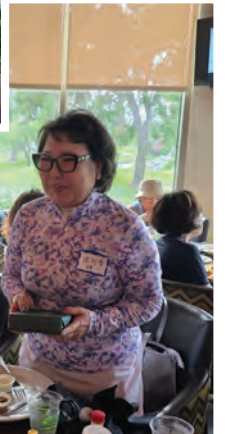
2025년 이화골프 Tournament가 9월 17일 수요일 Downey에 있는 Rio Hondo Golf Club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국내외로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여러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봄에 하던 모임은 하지 않기로 하고 가을에 한번만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총 22명이 참가하여 선후배 간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난 후에는 모두 모여 저녁을 함께 하며, 참가상 챔피언상 장타상 근접상 다더블상 베스트 드레서상과 더불어 예쁜 선물이 주어졌고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움 속에 헤어졌습니다.

우리 이화골프 모임은 단톡방에서 서로 카톡을 주고 받으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동문들이 계시면 76 신호정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이영재 (54기)는 1979년 뉴욕을 터전으로 30년 이민 생활중 남편 사별후 아들이 사는 산호세로 이주하셨다가 산호세 시절에 뇌졸중을 앓고 그 휴유증으로 거동이 불편 하여 2022년 봄에 서울에 있는 "이화 요양원"에 와 계 시는데 요양원 이름도 이화라 어머니가 만족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이화여고 다 닌 기억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심으로 뉴욕에 사실 때 현지 이화동문 합창단에 열성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영원히 이화인인 어머니가 항상 간직할수있는 또 다른 기억을 위해서 얼마전 요양원에서 교복을 입고 사진 찍고 싶다 하셔서 교복입고 찍은 사진을 기념으로 올립 니다.

딸 희선이 드립니다.



졸업한지 70주년만에 재상봉, 2025년은 축제의 해였다!

홍연숙

지난 5년 동안, 우리 55기 동창들의 삶은 마치 젊은이들이 다 떠난 고향의 노을진 호수처럼, 한산하기만 하였다. 그런데 금년은 "청룡의 해," 2025년은 달랐다! 졸업한지 70주년, 금년에 88세를 맞는 우리 동기들의 서글픈 마음에 화려한 축제를 제공 해 주었다. 동창회 기념식과 이화상 시상식도 재학생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으로 장엄하고 풍성한 잔치였다. 70주년 동창을 오래간만에 주인공석에 앉혀주었고, 이어서60주년, 50주년, 40주년, 30주년 재상봉 후배 동창생들이 국내외에서 모여들어 기념식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잠시 저희 55기 동창모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과 LA에 제가 관련된 두 개의 55기 "카톡방"이 있는데, 한국에 22명, 남가주에 9명이다. 오랫동안 오혜식 동창이 한국 기대표를 겸하여 55기 전체의 회장이었고, 임순희 동창이 LA의 기대표를 섬겨왔었

다. 그러나 지금은 오혜식 동창이 안타깝게도 우환으로 일을 못하고, LA는 3-4년간 공백 상태였다가, 2023년 11월, 임순희 동창이 소천한 후, 저도 모르게 2023년부터 제가 기대표가 되어버렸다. 단지 동창회 소식에 응답을 제일 잘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후 겪어보니 "기소식" 원고를 쓰는 것이 영~ 즐겁지 않았다. 카톡방의 친구들은 소식을 보내도 반응이 없고, 소식이라면 우울한 소식 (우환소식, 소천소식 등) 이 대부분... 개구쟁이 손자 녀석 한 명이 "잔잔한 호수"에 돌팔매질 하는 사건(?) 조차 한 번 없었다!

이 와중에 우리 동기 한 명에게 "이화를 빛낸 상" 을 준다는 소식이 남가주에 전달되어 온 게 아닌가!!! 금년에는 전체동창회를 통하여 9명밖에 주지 않은 상인데... 잔잔한 호수에 "바위"를 던진 셈이었다! 기왕 다른 일도 있었지만, LA 우리 동기 중에서는 수상자 라완균과 제가 5월 말에 서울에 도착했다. 저는 수 십명





의 동창들의 재상봉을 상상하며 신바람이 나서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22명 모두에게 카톡! 카톡! 연락했지요!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모두가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 불참... 미안"이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1주일간, "이번 기회 놓지면, 다시는 못 볼지 몰라!"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호소한 결과 22명 중 6명이 5월 30일날 11시 유관순 기념관에서 모이게 되었고, 우리 LA의 2명을 합해서 모두 8명이 참석을 했지요. 그 6명은 모두가 어딘가 성치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지팡이, 휠체어, 아들, 딸,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가며 참석해준 정성이 너무 감사했다. 그 외에도 참석은 못했지만, 따로 연락하거나 회식하며 환담한 동창들도 3-4명 있었다. (신갑순, 박언호, 박도숙, 등)

이제 지난 5월30일날 동창회 현장 사진 5장을 설명하면서 소식을 전달한다. <사진 1>은 5/30일날, 창립139회 화려한 기념식 무대에 선 수상자 라완균과 저예요. (저는 이미 35년 전에 동일한 상을 받았어요. 무대 배경에 현수막 (139회...) 사진이 이것 밖에 없어서...) 그리고 <사진2>는 유관순 홀을 가득 채운 재학생과 내빈들, 모두 일어서서 "아 아, 이화 이화... 아름다운 이름~" 교가를 부르는 입 모양이 보이지요! 두 장의 사진이 그 날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고, <사진3>은 오늘의 주인공, 자랑스러운 <이화를 빛낸 상> crystal trophy를 든 수상자 라완균 동창! 그가 들고 있는 수정 트로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다. 요약하면, "문화 예술부문"에서 받은 것이고, "동창님은 Smith College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하고... 가족재단을 설립하여 123개 단체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화가로서 LACMA 미술관에 작품

을 올렸고, 작가로서 시화집과 미술저서를 다수 출간... 미주 예술원의 자문위원으로서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공헌을 통해 모교의 명예를 빛냈기에 이를 표창함."

<사진4>는 그날 참석했던 55기 동창 8명중 이화여고 식당에서 찍은 7명 (정애라는 조금 늦게 참석함)의 이름: (왼쪽부터) 라완균, 전춘택, 최수복, 김경희. (오른쪽) 홍연숙, 이정숙, 강진숙 <사진5>은 유관순 기념관 앞에서 이화의 현재 재학생과 함께! 교복이 우리 때와 비교해 보면, 아주 상큼해졌지요! 와~ 얼마나 발랄하고 부러운 모습인가! 우리도 한 때는 그렇게 예뻐었지! (울컥...)

2025년은 이렇게 잔치와 축배의 분위기만을 우리 55기에게 안겨주지는 않았다. 동창회를 위하여 평생 봉사해 온 우리의 "대장"인 오혜식 회장이 현재 한국 (용인)에 있는 요양원에서 투병하고 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다. 우리들의 최우선적 기도 제목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가주 카톡방의 멤버들, 같이 모이지 못하니 까 같이 찍은 사진은 없지만, 이름만이라도 소개한다. 박영균, 라완균, 유영옥, 전영희, 최현숙, 윤석순, 박정자, 최옥주, 홍연숙. (총9명)

참, 진짜 마지막으로 금년 동창회 이은숙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화가 있어서 "사랑"을 배우고, 일생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동창회가 있어서 오늘날에도 과거의 영광을 회고하며 정기적으로 fellowship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화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며,

57

1957년 이화동산을 떠난 우리 동기생들은 나이도 지긋한 80대 중반이되어서 작년 10월에 로스엔젤레스 이화여고 미주 총동창회가 열린 로스엔젤레스에서 모였다.

우리 57년 동기생 대부분은 1938년 호랑이 띠들이어서 무슨 일이나 적극적이었고 한번마음먹으면 화끈하게 열심히 하는 기질이였다. 모처럼 만나는 이 동창 모임에도 한국과 미국 전역등

먼거리를 무릅쓰고 달려온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이 모임을 위해 애쓰고 준비해온 우리들은 마음이 뿌듯했다! 요즘들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여고 동창생들의 만남은 애뜻했고 감격스러웠다!

"년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옛날 모습이 아직 있어."

황영애

“죽지않고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는 구나!”

솜털이 보송보송하던 소녀의 얼굴이 60년도 더 넘어 주름진 얼굴로 만났어도 서로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들은 순식간에 세월을 뛰어 넘어서 아름다웠던 이화 동산으로 옮겨다 놓았다. 긴 세월 끝에 달라진 모습에 낯설어 한 것은 잠시였다.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월의 벽은 무너져서 허물없고 편안한 ‘여고 동창생들’이 되었다.

그렇게 그리움과 회포를 풀며 보낸 단 며칠은 꿈처럼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 돌아갔다. 돌아가는 발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고, 새로 만든 추억들로 가슴이 뽕뽕해진 기분은 나만의 착각인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꼭 다시 만나자고 다짐하면서 헤어지는 우리들은 서로 따듯하게 포옹했다.

그래, 우린 57년도 호랑이띠들 기질을 살려서 씩씩하게 명랑하게 살고 기회 있을때 마다 열심히 만나자,친구야!



60

민경문

60년도 소식 전합니다. 저희는 매월 셋째 목요일 죽향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Orange County에서 모이고 있구요. 지난번에는 친구 민경순이 Las Vegas에서 와서 생일턱을 해서 재미있는 모임을 가졌구요.

박자경 친구는 아프리카 선교 여행도 다녀왔어요.

고령인데 감사한 일이지요. 슬픈 소식도 들리네요. 선우숙 친구가 동부에서 별세, 서울에서 박혜선 길행자가 별세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나이를 잊고 살다가 깜짝 놀라네요.



오늘의 꽃

나태주 -

웃어도 예쁘고
웃지 않아도 예쁘고
눈을 감아도 예쁘다

오늘은 네가 꽃이다



61

윤수경

먼 길

- 나태주 -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우리 62기는 거리 관계상(교통문제) 일년에 두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첫 모임은 3월 4일, 용수산에서 즐거운 모임을 갖었습니다. (18명)

우리 동기중에 동부에서 살다가 LA로 이사온 김경자가 참석해서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우리 동기들의 활동을 보면 Flute을 전공한 한옥주가 만나선교회에서 연주로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며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경재는 같은 선교회에서 동영상을 맡아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악(소프라노)으로 유명한 강미자가 자서전을 출간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을 전공한 홍선애(Sunny Kim)는 올해 2월 6일 LA 한국문화원에서 아름다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보면 반갑고 항상 그리운 친구들!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갖기를 희망하며 건강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소식을 사진과 함께 알려 드립니다.



Los Angeles 63 동아리 모임

LA에서 살던 동창들은 모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는 9명이 모이고 있다. 모두 80이 지났으니 이런 저런 사정으로 7명이 참석하고 있다. 요즘은 모임때마다 서로 점심을 사겠다고 하고, 집에서 만든 보리빵, 각종 유기농 엑기스 (매실, 개복숭아, 천연초 등등) 떡, 케이크 등을 가지고 와서 화기애애하게 서로의 사랑을 나눈다.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오면 "벌써 헤어질 시간이니?" "좀 더



OC 63 동아리 모임

63은 LA와 OC 두 군데로 나누어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장거리 Freeway 운전이 어려워 안타깝게도 함께 만나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가끔은 우버를 타고 때로는 기차를 타고 어렵게 와서 함께 하기도 하는 우리 동기들은 참으로 끈끈한 우정과 돈독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63 모임입니다.

OC는 두 달에 한 번씩 홀수달 세 번째 금요일에 모이고 있는데 적게는 14-15명 많게는 2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가끔은 멀리 샌디에고 지역의 친구들도 왕복 4-5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참석하기도 하지요.

12-14살에 만나서 60년 넘게 친구하며 또 먼 타국에까지 와서도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이토록 오랫동안 함께 만나 어린 시절의 옛 이야기부터 팔순이 넘는 고령의 노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이서 살게 된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닌 듯 싶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대부분 친구들의 80세가 되는 해로 작년 202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흥겨운 팔순 잔치에 연속 이랍니다.

63 친구들! 앞으로의 10년도 건강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90세까지 즐겁게 만나면서, 그때 또 다시 구순 잔치를 해 봅시다. 63 이화 파이팅!!



2025.1.6(월요일) 뉴욕의 정화영 동기의 엘에이 방문을 환영하며 헤이리카페에서 모임을 갖다. 친구들 10명이 참석하여 담소하며 잘 먹고 잘 놀았다. 솜씨좋은 화영이가 맛난 쿠키를 구어서 10개의 상자에 포장해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다. 취미가 완벽한 프로의 경지!



2025. 2.12(수요일) 오렌지 카운티 강남하우스에서 모임을 갖다. 올해부터 격월로 모이는 정기모임을 L.A.와 O.C.에서 번갈아 하기로하다. 오늘은 12명 참석. 내년엔 있을 60주년 모교행사에 참여와 모교에 보내는 기부금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60주년 준비팀으로 4명 선정하고(엘.혜옥/정순희/엘.영희/글영희) 1년간 기부금을 받아 한국에 전해주는 특별회계 임무를 엘에이 영희가 맡기로하다



핑을 듣다.

2025. 4.8(수요일) 엘에이 모임 참석자 6명(죽향식당)
2025. 6.3(화요일) 내년 5월에 있을 60 주년 행사위원장을 맡은 김현실 동기가 해외동포들(66동기들)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뉴욕과 북가주 동창들을 만나고, 엘에이 에서 반나절을 보낸다가 O.C 에서 모임을 주선하니, 역시나 2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고(남편들도 3명참석), 현실이의 행사에 대한 브리

2025. 6.25(수요일) 60주년 준비팀이 모여 혜옥이가 프린트해 놓은 60주년 초청편지를 큰 봉투에 넣는 작업과 우체국에 가서 캐나다, 유럽, 캘리포니아에 사는 친구들에게 발송하다. 혜옥이가 동네에서 맛있는 김말이 밥으로 점심을 먹여준다. 고마워 혜옥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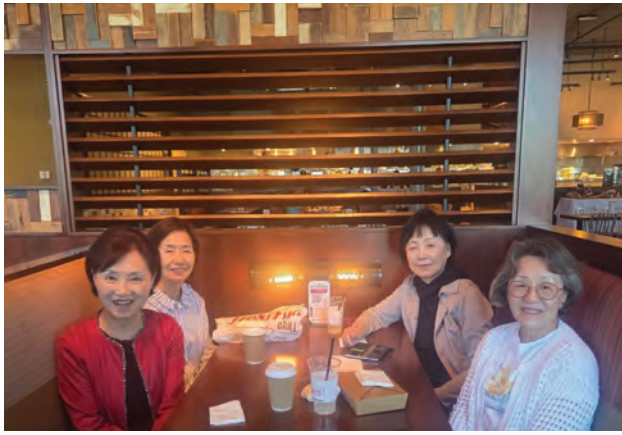
2025.8.13.(수요일) 죽향에서 엘에이 모임을 갖는다.

우리의 영원한 기대표 경애가 매번 모임때마다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일지를 보내줘서 이를 살펴보니,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싶어, 한동안 추억에 잠겼다가 정신 차리고 기소식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1월에는 2027년에 졸업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총무로 수고하게 된 노정란이 방문해서 한국에서 현역 화가로서의 건재함을 보여줬고, 5월에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날로날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도예가 박영신이 EK gallery에서 그룹 전시회를 열어 미술애호가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6월에는 영원한 소녀 같은 김동순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는 이별의 아픔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을 돌아보는 숙연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세크라멘토에 사는 나기예가 찾아왔었고, 또 서울에서 윤덕희가 찾아와서 몇몇 친구들과 반가운 만남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우리 67기는 매달 셋째 목요일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만나는데 6월에는 바쁜 일들이 많아서 정규 모임을 건너뛰고 7월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니, 울들어 가장 많은 11명의 친구들이 모여 그간 밀렸던 이야기 보따리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풀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도 헤어지기 섭섭하여 파킹장에서까지 이야기가 끝

없이 이어지다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 만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만나자! 친구들아 ~~~"라고 기약하며 드디어 헤어질 수 있었답니다 ~

참석 안 하는 동기들도 스스럼 없이 나와서 더욱 화기애애한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68

을 한해도 우리의 68 이야기는 변함없이 계속 된다. 서로 서로 도와가며 운전도 해주며 한번은 엘에이에서 한번은 오렌지카운티 소스몰에서 우리는 아주 즐겁게 한껏 꾸미고 만나다.

누가 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너무나 오래되고 그저 자기 하고픈 말 듣거나 말거나 시원하게 하고 오면 되는 모임이다 인생이 다 그렇다 하지만 3월에 사랑하는 친구 혜실이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 모두가 그 친구 가는 길에 모여 찬양하며 함께 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그 친구는 여전히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 품으로 갔다.

6월엔 Juniper Hills에 별장을 가지고 있는 문희가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어 그야말로 일박이일 수학 여행을 갔다. 슬라이빙 백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먹고 하늘의 별도 다 누워 보고 잠옷바람으로 체조도 하고 그야말로 달밤의 체조를...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꽃피며 새벽을 맞았다. 점심은 그 옆에 별장 주인인 혜선의 초대로 콩국수를 먹었다. 날씨도 75살 친



구들의 수학여행을 축하하듯이 화창했다.

모두가 바라는 것은 크게 없다. 우리 68 이야기가 이렇게 끝없이 잔잔하게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우리의 친구들이 바쁘고 남편 돌보느라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운전하기 힘들어도 우리모임에 정성들여 나와주기에 우리의 모임이 끈질겼다는 것이다.

행복한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하다.



한숙희

우리 LA 70 동기 모임은 여전히 두 달에 한 번씩 L.A.와 O.C.에서 만나고 있다.

2024년 10월, 북미주 총동창회부터 시작하여 무척이나 왕성하게 그동안의 만남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듯이 잦은 회동을 하였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LA에서 열린 북미주 총동창회에는 한국에서, 미국 각지에서 27명이나 모여 북미주 총동창회 만찬 때의 장기자랑 참여, 멕시코 4박 5일 Cruise 여행, 그리고 Palm Desert Marriot's Resort 에서의 3박 4일 추억 쌓기 여행 등등 참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2025년에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던 50주년 재상봉행사를 못 하였던 관계로 55

주년 재상봉행사를 모교에서 하기로 하고 해외에서 27명의 친구들이 이화 139주년 개교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외 친구들과의 4박 6일의 태국여행, 한국 친구들과의 2박 3일의 통영여행, 참으로 바쁘고 알차게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다. 특히 우리 한국 70 임원진들의 세심하고 정성어린 준비에 모두들 감탄했다. 정말 친절에 가서 호강하고 온 기분이었다.

서울에서 55주년 재상봉행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우리 모두 60주년 재상봉행사 때 꼭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고 다짐하고 돌아 왔다.

우리 멋진 LA 70 친구들!

부지런히 만나고 늘~ 행복합시다 !!



LA 이화여고 1971년 졸업 동기

올해 2025년으로 우리는 졸업한지 54년이 되었다. 강산이 다섯번도 더 바뀌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 아마 이화여고처럼 좋은 학교를 나와서 일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도 좋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학교들 보다 얼마나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선생님들, 더 좋은 친구들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 같다.

요즈음 우리는 일년에 두 번 피크닉도 가고, 매달 둘째 토요일에 Orange County에서 10-12명이 만나고 있다. 대부분이 Orange County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나서 맛있는 점심 먹고 coffee 마시고 수다 떨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의 소식도 알리곤 한다.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들어 대부분이 손주들 때문에 바쁘다.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손주 보는 것은 덜 스트레스인 까닭은 다 돌려보낼 집이 있어서이다. 손주들 사진을 보여 주려면 돈을 내고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서로 손주들 사진을 보여 주며 흐뭇해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2명까지 모였었는데 이사도 가고 한국으로도 돌아가고 여러가지 이유로 숫자가 줄었다. 여하튼 어려서 의 친구들이라 추억도 공유하고 꿈도 공유하며, 다른 지역 동창들이 LA에 들릴 때엔 우리 모임에 참석하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말이 맞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평준화된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예쁘고 날씬한 친구, 부자인 친구, 리더십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 이제는 부러워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사는 것이 편하다.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짧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천국 입성할 것이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죽어 저 세상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나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을 하지도 못하고 갔기 때

문에 "My Prayers, My Wills File"을 만들어 아이들 앞으로 한 개씩 남겨 놓았다. 그리고 "After I die file"을 만들고 있다. 내가 죽은 후에 아이들이 장례식에 필요한 information들을 정리하여 남겨 놓으려고 한다. 아이들이 information이 없어서 당황하지 않도록 말이다. 나이가 든 지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 많은 것이 후회된다. 그러나 후회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간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 오라고 하신 일들을 성의껏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한다.

72

72기 동기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홀수 달은 LA에서 짝수 달은 Orange County에서 현재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점점 Orange County에서 모임 때에 모이는 숫자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건강하면 좋겠으나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아무쪼록 다들 노후에 건강 관리를 잘해서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 가기를 동기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가 가장 희망하는 일 인 것 같습니다.



방창범



73

73 동기들 중에는, 작년에 이미 70세가 된 친구들도 있고 올해 드디어 70세가 된 친구들도 있다. 2025년은 73 동기들 7-8명이 1994년에 신북경 중국집에서 창립 모임을 가진 지 31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2달에 한번씩 LA 와 OC를 번갈아 가며 모임을 가지면서, 한번도 Skip 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 여러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희생하며 각자 맡은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그 고맙고 감사했던 마음을 조잘조잘 말하고자 한다.

김혜숙

LA 73 동창 창립 모임을 위해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어렵게 만남을 주도한 친구, 매번 만나는 장소를 선택하여 예약해주는 친구, 계모임으로 바꾸었음에도 한번도 금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친구, 팔이 아픈데도 coffee를 맛있게 끓여 오는 친구, 각 나라 여행할 때마다 특색있는 dessert를 챙겨 오는 친구, 매해 스승의 날에 코사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오는 친구, 생일을 기억하고 카톡으로 축하해주는 친구, update 된 사진 기술로 우리들을 늘씬하고 우아하게 찍어 주는 친구, 한국의 각종 옛이나 강정

을 맛보게 해주는 친구,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한 달 살이 한 후 소중한 체험을 들려주는 친구, 탁월한 의학 상식으로 건강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아주 멀리 Laguna Niguel, Mission Viejo에 살면서도 참석하고, 어깨가 다쳐어도 운전하며 달려오는 고마운 친구들, 때로는 Las Vegas에서, 한국에서, LA 방문시 꼬옥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들, 지금도 몽골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친구, 텍사스에서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행장 친구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몹시 저미게 하였던, 2021년에 하늘나라에 먼저 간 그리운 송해민 친구, 올해 5월에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는 보고 싶은 윤갑모 친구, 환한 미소를 짓는 두 친구의 사진 속 모습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함께 숨쉴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친구들이 있기에, 73 모임이 잘 지속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이 귀한 모임이 뜻깊게 유지되리라 믿는다.

또한 지난 5월 스승의 날에는 예년과 같이 주영혜, 김옥규 선생님을 모시고 서로에게 덕담과 축복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우리 73 동기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고 기쁨이다. 사진을 보면서, 그리운 고 김성희 선생님의 고운 모습에 모두 마음을 아파했던 기억도 되살려 본다.

우리 열심히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 추억의 목걸이를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모임에 더욱 열심을 다하자.



74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눈 뜨자마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합니다. 물 한 컵과 약을 복용하고 나면 30분 동안은 다시 누워서도 안되고 커피나 음식을 먹어서도 안된대요.



이선희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그 30분! 어떤 날은 걸음도 천천히 움직임도 느릿느릿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기도 하고, 다른 날은 아예 마당으로 나가 부지런히 눈에 띄는 잡초도 뽑고 밤새





새로 핀 꽃들과 눈인사도 나누고 물도 주다보면 그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린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동기들이랑 LA에서 만나 지내온 세월이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이건 30분× how many??

물방울만 닿아도 툭! 하고 튕겨져 나갈것 같이 파릇파릇 싱싱했던 우리가 집에선 아내, 엄마, 딸 노릇, 밖에서는 각자 일터에서 가진 역할과 의무들을 수퍼우먼 처럼 잘도 감당해내고, 그래도 만나면 웃음이 떠나지 않던 그 우리가 어느새 나이 70이랍니다!

한때는 바쁘게, 이제는 좀 느리게 움직여 보려 하는데 종종 손주들이 한가한 할머니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지요. 호호호.

우리 동기들은 작년에 졸업 50주년 행사를 치렀고 올해는 대부분(55년생들) 70세를 맞아 우리끼리 자축여행으로 멕시코 크루즈를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번 60세때 다녀온 쿠루즈 여행이



너무 즐거웠어서 이번에도 기대가 큼니다.

올해 초에 우리 동기 최정희가 암진단을 받고 갑자기 건강상태가 악화되어서 동기들이 혼자 지내는 정희를 도와야겠다고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요일별로 지원자들을 정해 하루도 빠짐없이 정희를 찾아가 거동을 살피고 식사 챙겨주고 장 봐주고 벗 해주기 등등... 3월부터 시작한것이 벌써 반년이 넘어섰습니다. 그사이 정희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2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대요.

여러 친구들의 돌봄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저는 우리 동기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훌륭한 실천꾼들인지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저를 이화동산으로 이끄시고 이렇게 배울 것 많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75

친구들과 팔장끼고 걷던 등나무길, 노천극장에서 의 예배시간, 즐거웠던 특별활동 시간들, 강원도 산을 굽이굽이 넘어 어느 산골 마을 학교 교실에서 밤새 벌레에 물리며 잠을 청했던 첫 봉사 활동 경험, 고풍스러운 이화여고 정문, 담쟁이로 가득했던 스크랜튼 홀, 우리 때 짓기 시작한 유관순 기념관, 여러가지 옛 학창 시절 기억들을 문득 문득 꺼내보곤 했었는데 어느새 우리 75기가 졸업한지 50년이 되었답니다. 그 50년동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거울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50주년 동창회에 갔다 온 친구들이 들고온 소식들을 접하며 상상의 날개를 펴보기도 하고 보내준 사진들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찾아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애리를 만나고 온 정림이, 철경이, 해주, 현주에게서 친구의 근황 소식도 들었습니다. 작년 10월에 LA에서 열린 북미주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 한국에서 와준 75기 동

김미례



기 회장 성시열, 한국 총동창회 부회장 이경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75 동기는 매 짝수 달, 첫 번째 토요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Line dance를 즐기며 saxophone을 부는 친구,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원로 한국 학교 선생님인 친구, California에 3년 전에 이사온 그림그리는 친구, 성경공부 leader인 친구들, 골프를 잘 치는 친구들, 남아공에 선교를 갔다온 친구등 우리 친구들은 하나하나 탈란트가 많은 친구들이지만 또 가족들에게 헌신적이기도 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또 조카까지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부모님들을 섬기는 친구들입니다. 모두 바쁘게 지내지만 그래도 두 달에 한 번 친구들 만나 점심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올해 우리에게 자랑스런 소식은 친구 권선희가 한인보험재정전문

인협회(KAIFPA) 에서 28대 회장으로 취임한 소식입니다. 선희는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화동창 일을 위해 언제나 선뜻 도와주는 멋진 친구입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 75기가 이화 남가주 동창회 회장단을 맡아 열심히 일하였는데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로부터 힘을 얻고 선배님들의 이화 사랑에 감동하였습니다. 지난 송년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잘 마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만남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76

2025년은 76기가 남가주 총 동창회를 맡게 되어 알게 모르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맞이하였다.

동기들 중에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친구는 하나도 없고 모두 도와주겠다고만 하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준비된 자 김세운을 Maryland에서부터 이곳 LA 까지 보내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20년 넘게 매달 박은란 집에 모여 식사하고 담소 나누며 "우리 함께 여행가자" 는 제안에 모두 공감은 했지만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스케줄이 다르고 바쁘다 보니 정작 실천은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은 친구들이 은퇴를 한 완벽한 상황에서





김세온이 'Newport Coast Villas' 로, 고혜경이 Las Vegas 의 'Trump Tower' 로 초대를 해주어 제대로 호사를 누리는 여행을 하고 왔다.

"이렇게까지 우리 동기들이 노는 데 적극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랫동안 함께 한 Harp 연주도 계속하고, 매일 밤 Zoom 으로 성경 통독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자들이 나이 들면서 친구, 돈, 짬질방 취미가 필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두 가지는 이미 확보한 것같아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화라는 특별한 묶음으로 하나가 되어 가능한 것 같다.



올해는 한국에서 온 혜숙이 딸의 혼례가 있어 몇몇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시간을 내지 못해 만나지 못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니, 현옥이는 집 공사로 전화 통화도 바쁘게 끝냈고, 그 집 대추가 너무 잘 열려서 대추 따러 가야 하는데 말도 못 꺼냈습니다. 한국으로, 미국으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영숙이는 하도 조용하여 한국에 있는가 했더니 골프 배우느라 단톡방도 못들리나 봅니다.

혜영이는 아직 못다한 미 대륙 횡단 여행 계획으로 마음이 분주하나 언제든 시간만 맞으면 집에서 모이자고 하네요. 영주와 소영이는 Business 하느라 바쁘고, 그나마 동기들 중 제일 가까이 사는 형주는 가끔 헬리콥터도 같이 가고 빨리 이화 모임에서도 자주 만나는 유일한 동네 친구인데 집을 이사해 언제 집을 이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영이는 아직 연락도 못해 어찌 지내는지 궁금한데 멀리 코로나에 사니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라 든든합니다. 미혜는 아버지 돌보며 봉사활동, 이화합창단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외 몇몇 친구들은 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 소식이 궁금합니다. 내년 하와이 여행 그리고 내후년엔 50주년 행사를 위해 좀 더 모임을 적극적으로 가져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친애하는 동문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1987년 졸업생 김(조) 은이입니다.

지난달 이영심 선배님의 연락과 함께 '기대표' 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첫 활동으로 이번엔 거울지를 통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쑥스럽습니다. 사실 87년 졸업생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이곳에 남아있어, 대표라기보다는 '홀로 참가자'로서 제 소식만 전하게 되었네요.

졸업한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교정에서 함께 웃고 울던 친구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노천광장과 유관순 기념관에서 드리던 채플, 선교 중창단 활동, 그리고 농활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유학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해 미주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어, 이곳의 삶이 이제는 고국에서의 삶보다 더 익숙해졌습니다. 현재는 미 육군 군목으로 지난 6월 초부터 플로리다 템파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남편과 네 딸은 세리토스에 거주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기러기 엄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년 거울지가 발간될 때마다, 선배님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소식을 접하며 큰 힘과 격려를 얻습니다. 저 또한 작은 소식이지만, 이 글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87년 동기들과 다시 연락이 닿아 함께 이름을 올릴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는 저 혼자라도 꾸준히 참여하여 '87 학번의 불씨'를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3년 후, 20년간의 군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가족이 있는 LA로 돌아가게 되면, 더욱 활발하게 동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되는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정부 지원

전기판넬 200AMP
업그레이드 ✓

솔라에너지 & 배터리

ESS

- 선불금 없음
- 신용조회 없음
- 월 납부금 없음
- 전기요금 절약 전력유지
-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한 실천

캘리포니아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 및 재난 위험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기판넬 200 AMP 업그레이드와
태양광 및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을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3-216-1772 한진

재정점검, 은퇴준비의 첫걸음

윤조현 (재정전문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최근 불거진 관세 전쟁등 경제 전반에 걸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코비드 이후 질병 등 건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더 증가하는 가운데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많은 일자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어느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나의 은퇴 준비는 과연 어떠한지 재정 전반에 걸친 점검을 받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갖추어져 있는 미국조차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얼마 가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당장 뼈뺀 현실에 은퇴 준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방법은 있으니, 내가 은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우선, 나의 은퇴 수입은 어디에서 올 것인지 생각해 보자. 자금을 굴릴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은행, 주식 투자, 부동산, 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특별히 우리 한인 가운데 부동산 임대수익을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세계 공급망 변화로 인한 물가불안정 및 유지 관리의 여러 어려움 등으로 많은 자산과 부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다. 주식 시장의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손실에 대한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치명적 단점이 따른다. 이러한 리스크는 안정적 은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필자는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위해 유태인들이 이용한다고 많이 알려진 보험회사의 금융상품들을 이용하여 많은 분들의 돈 걱정 없는 안정적 은퇴를 돕고 있다. 특히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과 인덱스드 이자(Indexed interest)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 결코 놓쳐서는 안될 항목이다. 혼자서 일상 생활의 활동이 어려운 롱텀케어(Long-term care)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암, 심장병, 신장질환, 뇌졸중 등 중대질환의 발병 또는 진단만으로도 사망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리빙 베네핏은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장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가 된 요즘, 인덱스드 이자의 활용은 은퇴 준비에 절대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노후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은퇴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내 자산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노후를 위해 나의 건강과 재정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전문가를 통한 재정점검을 꼭 받으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부자 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FINANCIAL PROFESSIONAL 재정전문가

윤조현 (LIC#4098629)

- 생명보험
- 리빙베네핏
- 절세플랜
- 어뉴이티
- 401k
- 상속플랜
- 은퇴플랜
- 학자금플랜

559.349.1214




Somatic memory

이성자 (76)

Somatic memory는 몸의 기억을 뜻한다.

옛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술 마시고 기생집을 자주 갔었나 보다. 어느날 부모님께 꾸중을 크게 듣고 나서 다시는 안 가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나니, 자기가 또 기생집에 와 있는 것을 알고 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말의 목을 쳐서 죽였다 한다. 이것도 말의 몸에 새겨진 기억 때문이 아닐까 한다.

동물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의 몸의 기억은 얼마나 강할까 생각이 든다. 휴가를 오래 가거나, 일을 오래 안 했을 때, 여러 storage room passcode 나 computer password가 생각나지 않아 머리가 새하얘지는 경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손가락으로 여러 번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이것도 몸의 기억 때문이 아닐까?

이제 나의 somatic memory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나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우량아로 지냈다. 그당시 한국에서는 전부 말라서, 살 찐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나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75kg 정도 되어, 내가 지나가면, 남자들이 '백금녀 지나간다' 소리를 많이 하곤 했다.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너 살 빼', '너 밥 좀 그만 먹어' 소리를 하신 적이 없으니, 이것이 어머니 사랑인지 무관심 인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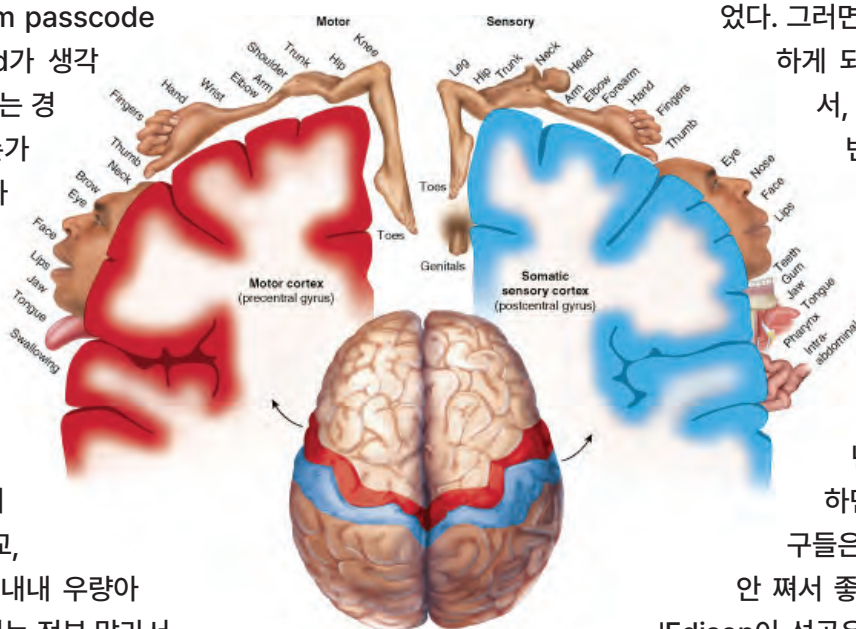
그러다, 결혼 하고 애 낳고 일하며, 지금 정도의 체중이 한동안 유지 되었었다. 그런데 애 들한테 가는 손길이 많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993년 즈음

150pounds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때부터, YMCA에서 aerobic, step, running, swimming ... 닥치는대로 했더니, 1년 쯤 되어 25pounds가 빠졌다. 그때는 30대 중반인데도, aerobic을 하면 소변이 새어 바지가 다 젖곤 했다.

그러면서, 운동은 하되, 많이 relax 된 상태에서 여유롭게 했더니, 5 or 6년 만에 또 15pounds가 썰 있었다. 이 때는 큰애가 작은애 ride와 pick up을 많이 도와주게 되니, 나도 하루를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mountain hiking을 하게 되었다. Running을 하면서, 죽기 전에 marathon 한 번은 해야지 생각했는데, ski 갔다 넘어져, 무릎이 이상해져, running 대신 수영을 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지난 20 여년을 그런대로 체중유지 하면서 살고 있다. 어떤 친구들은 나더러 '너는 먹어도 살 안 찌서 좋겠다' 한다. 그러면 나는 'Edison이 성공은 99%의 perspiration and 1%의 inspiration으로 된다더라' 하고 대답하면 '너도 노력한다는 얘기네' 하곤 했다. 오리가 물위에 떠 있기 위해 얼마나 오리 발을 움직이는지 아무도 모르지 하고 대답하곤 했다.

이제는 나의 몸 곳곳에 돌로 새겨진, 일주일에 두 번 8miles hiking과 일주일에 서너 번 half mile 수영을 안 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안해 진다고 해야 할까 그런 기분이다. 내 몸에 새겨진 좋은 기억이라 생각한다.



2024년 크리스마스



2024년 크리스마스



2025년 회의모임

- 2/1/2025 이화 실행 위원회
- 3/8/2025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 이사회
- 5/3/2025 이화 실행 위원회
- 5/24/2025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 총회
- 9/6/2025 이화 실행 위원회



거울 사진관



54 이영재



56 이혜리 친구 한영숙과 함께



56 이혜리



57 이안나 한영숙 언니와 함께



57 이안나 60th Anniversary



57 이안나 한영숙 선배님 자택에서



New York 6/22/2002



62 김운자 60th Anniversary



62 김운자



62 김운자 군산 피난 시절 모자



62 김운자



62 김운자 50th Anniversary



62 김운자 시어머니 칠순



63 김부자



66 이해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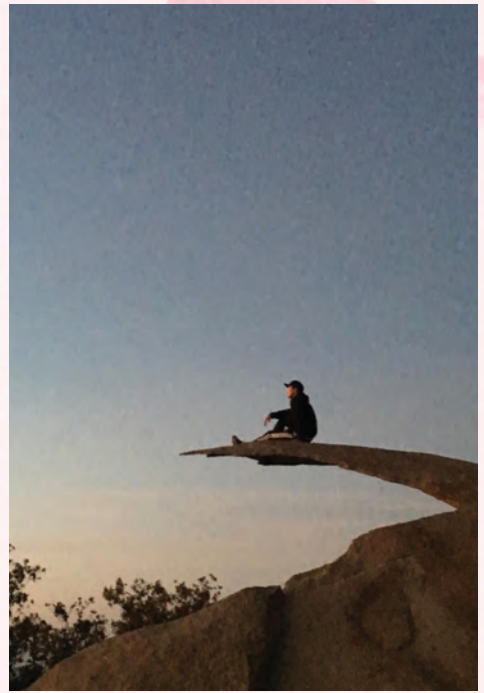


2학년 인반 친구들과 수학여행에서



이화여고 입학식 날 집을 나서며





책 소개와 독후감: [Plus Ultra]를 읽고

이혜경 (69)

두 여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by Gertrud von le Fort, Ignatius Press, San Francisco, 2015)

이 책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라서 감명 깊은 동시에 슬프기도 한 단편 소설이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은 실제 인물인 신성로마제국 황제 찰스 5세(Charles V, 1500-1558)와 그의 고모 Margaret of Austria 대공비(1480-1530)이며, 또 한 사람은 가공 인물 Arabella라는 궁녀이다. 소설은 아라벨라가 수녀원장에게 쓰는 편지형식이고, 역사적 내용은 거의 실화이며 16세기 신성로마제국의 영토(현재의 스페인, 벨기에, 동 프랑스 일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대공비(Margaret)는 황제의 딸인 탓에 많은 정략결혼의 대상이었으며 1501년에 미남으로 알려진 필리버트(Philibert II the Fair, 1480-1504)와 세번째 결혼을 했다. 3년만인 24살에 또 미망인이 되자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평생 미망인의 베일을 벗지 않았고 다시는 결혼도 안 했다. 남편을 기리기 위해 설계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는데 이 성당 이름은 Royal Monastery of Brou이다. 프랑스 중부 리옹(Lyon) 북동쪽에 기차로 약 1시간 걸리는 Bourg-en-Bress라는 동네에 있으며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작은 규모의 아름다운 건물이다.

황후의 시녀지만 황제를 사모하는 아라벨라는 어느 날 대공비의 시녀로 차출되어 Valladolid 궁정을 떠나 멀리 말린스(Malines)로 가야했다. 떠나던 날 공비에게 작별인사를 하러 온 황제를 보며 그녀는 황제가 자기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느낀다. 이리 강제로 떠나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녀의 사랑을 눈치챈 누군가가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자기 뜻에 반하여 먼곳에 온 그녀는 여기로 데리고 온 공비를 원망한다. 대공비의 강아지를 걷어차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고, 황제의 선물인 공비의 루비 컵을 깨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등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의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많은 밤을 울며 지낸다.

대공비가 짓기 시작한 성당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성당은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여인의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봉헌일은 가까워 오는데 성직자들은 대공비가 중앙 제단을 준비 않은 것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인간(남편)을 위한 세속적 건물이니, 이단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대공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그러겠습니까? 제 마음이 작아서인지 모르나 지금의 저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는 (남편) 인간이었고 저는 인간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남편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이별이란 게 없으므로, 제게 이 성당은 무덤이 아닌, 죽음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저는 그가 생전에 사랑했던 것들로 이곳을 장식하여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쯤에 아라벨라는 공비로부터 Valladolid 궁정에서 자신을 수녀원으로 보내려 했던 사실, 또 그러면 사랑에 빠진 자신이 거기서 시들어 죽게 될 것을 알고 대공비가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을 듣고 놀란다. 공비는 “거기서 너는 너의 사랑 때문에 죽게 될 것이나, 나는 너의 사랑함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살아 남기를 바랐다. 사랑에는 헤어짐이란 없기에 너의 사랑은 살 것이다. 사랑하여라, 딴 것은 바라지 말고!” 라고 한다. 아라벨라는 하루도 좋으니 Valladolid로 보내 달라고 애원하다가 자신을 수녀원으로 보내려한 사람이 바로 황제였음을 알게 된다. 황제도 그녀를 좋아하지만 제국에 대한 의무가 먼저이므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것도... 그녀는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마치 몽유병 환자같이 한 밤중에 궁 밖으로 뛰쳐나가 돌아다니다가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본 대공비는 아라벨라에게 “제국에의 의무는 황제조차도 겸손하게 만드는 것, 제국은 그것을 통치하는 자에게 어떠한 결점도 치욕스러운 일도 허락 않는다!”라며 무섭게 야단을 쳤다.

대공비는 아라벨라를 동행하여 Valladolid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황제의 편지를 받고 여행을 취소하자 격분한 아라벨라는 공비의 루비컵을 깬 그로 인해 공비는 발에 상처를 입는다. 상처는 크게 덧나고 급기야 회저로 변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도 해야했다.(이는 역사적 사실임) 아라벨라는 후회와 자책감에 몹시 괴로워하지만 대공비는 그녀에게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곧 만날 것이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거야”라며, 성당 제단을 조카 황제가 대신 봉헌해 줄 것을 원한다고 말하며 눈을 감는다.

대공비 밑에서 일했던 시녀들은 가족에게로 가던지 다른 귀족부인들에게 소속되어 떠나는데 아무도 아라벨라를 원치 않았다. 그러자 시녀장인 백작 부인이 그녀에게 수녀원으로 가면 어떠냐고 설득하는 중에, 황제가 대공비 사후 일들을 해결하러 Malines로 온다는 소식이 왔다. 황제가 대공비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하자, 백작 부인은 그녀를 가두어 놓으며, “네가 Valladolid를 떠난 이유 때문이라도 황제를 만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아라벨라는 당돌하게 “수녀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황제를 뵈 수 있나요?”라고 묻고, 백작 부인은 수녀가 되라는 자기의 권고를 아라벨라가 수용했다고 믿고 황제와의 만남을 허용한다.

황제를 본 그녀는 불과 몇 년 사이 그가 몹시 초췌해졌으며 짙은 고독함이 얼굴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본다. 황제에게서 본 것은 예전의 그 섬세한 얼굴이 아니라, 위엄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앉아있는 황제일 뿐이었다. 그는 아라벨라가 수녀서원을 한 것을 아는지라 축하한다고 했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위선을 깨닫지만 그 거짓 맹세를 진실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다. 대공비의 마지막 모습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비는 세상을 떠나는 성녀의 모습이었읍니다”라고 답했고, 또 대공비가 예배용 제단을 황제가 봉헌해 주기를 소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제는 자신의 고모가 “기독교의 공주, 황제의 딸로서 이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공비의 마지막 말이라며, 공비께서 “신은 모든 종류의 사랑을, 비록 개인적으로 또 (개인에게) 바쳐진 사랑일지라도 허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니, 황제의 얼굴은 창백해지며 당황해 하였다. 아라벨라는 황제의 태도에서 자기가 Valladolid를 떠날 때 본 그의 눈길에 대한 의문을 이제야 풀게 된 것이었다. 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고 나할까! 둘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작별인사를 한다. 며칠 뒤, 황궁의 신부가 그녀를 찾아와 황제의 명령이라며, 그녀의 수녀서원

은 완전한 자유의사가 아닌 즉흥적인 상황에 인한 것 같으니, 그녀가 원하면 로마의 허가를 받아 세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것이나, 놀랍게도 그 짧은 대화 동안 그녀는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철없는 아이로만 보는데 반해 오직 황제만이 아라벨라를 마치 같은 신분의 사람처럼, 또 완전한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있음을... 그녀는 앞으로는 자유로이 황제만을 사모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수녀원 밖 어디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묻고는 수녀원으로 들어간다.

성당이 완공되고 수녀원에 임시로 모셔져 있던 공비의 유해를 Brou 성당에 안치하는 날, 그녀에게 참석하라는 지시가 온다. 황제도 참석 예정이었으나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게 되어 대

리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벨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가 지정된 자리로 안내된다. 봉헌식이 끝나고 Brou 성당 최초의 예배가 올려질 때,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자 의자 앞에 장식된 휘장에 눈이 간 순간, 그녀는 자기가 누구를 대신해서 여기 왔는지, 그 누구가 무엇을 그녀에게 말하려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 휘장에는 황제의 모토, “PLUS ULTRA”라는 글이 수놓아

져 있었다. 이 봉헌 예배에 그녀는 황제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이고 또 그녀의 사랑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야만 한다는 것 까지도!

후기: 이 모토 [PLUS ULTRA]는 곧 황제와 제국의 상징이었고 오늘날 스페인의 모토이다. 뜻은 “더 높이” 혹은 “더 숭고하게” 등등으로 해석되며 스페인의 많은 역사적인 건물에 PV(고전 라틴어 이므로 U는 V로도 쓰임)라는 약자로 된 문양이 무수히 남아 있다. 아마 황제 Charles 5세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기는 싫었나 보다. 그 누구보다 높이 도약하고 싶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러했다고 본다. 소설의 배경 16세기는 종교가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인지라,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잣대로 보면 다소 격세지감이 있겠으나, 사랑과 공인으로서의 의무, 도덕성 같은 측면에서 보면 600년 후의 오늘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2025년 동창회비 (360명) \$18,405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52	김희경 최영해
53	석윤희
54	김숙정 박정옥
55	박영균 유영옥 윤석순 전영희 최옥주(\$55) 홍연숙
56	김순성 김정은 송영자 유경선 이성숙 이혜리 최화자 한영숙
57	김태신 김혜련 윤연순 이안나 이양훈 이영심 이은경 임영실 장명숙 정수혜 진영주 차명숙
58	김연 김영혜 박인자 신현자 이영희 이장란 장한열 최운봉
59	원효정
60	강정희 김동승 김수경 김영인 민경문 박자경 신호국
61	61기 동창회비(\$500) 오순자
62	강미자 김경자 김대훈 김명자 김윤자 김정자 김차남 김홍숙 김희성 박미자 박화영 변양자 송영자 안수영 유혜란 이경재 이선화 이희경 장영자 전민옥 조경옥 조양자 조호경(\$100) 최숙자 최영하 한옥주 홍선애 황현숙
63	강순자 강승자 강재경 고혜원 김명자(ceri) 김명자(enc) 김보연 김송자 김여옥 김윤자 김인자 김혜자 김혜중 나춘실 박절주 윤혜자 이경옥 이명자 이상옥 이수미 이영애 이용복 이인화 이정숙 이정자 이혜련 이혜숙 임주자 임철자 장현자 정건희 주춘탁 최수자 최애자
64	고광애 김명옥 김문자 김소연 김정선 김정자 김진순 김현옥 박영신 방인숙 배경순 백현자 서원희 신영숙 안순희 오현숙 이복희 이봉숙 이숙일 이옥경 이옥례 이정희 이주희 이현숙 전명원 조규령 조길자 최금화 최한희 최혜경 최희경 호진희 홍순조 홍은식
65	김영주 김옥희 김은주 김재기 박인영 서병희 송혜경 신향숙 오영옥 유소열 (\$100) 유향전 이열의 이정란 장명희 전애린 조혜련 허순희
66	고조이 길희경 김영희(G) 김영희(L) 김영희(T) 안영혜 안정옥 이명숙 이정숙 이혜옥(미) 이혜옥(예) 장영희 정덕주 정순희 한종주
67	김동순 김명숙 김정희 도경애 박경옥(\$100) 박영신 박영애 박혜숙 송현숙 송혜성 신중애 원승교 유재영 이상민 이영주 전신영 전용선 최영희
68	금봉숙 길정선 김광숙 김명숙 김애권 김정신 김태숙 김혜숙 김효숙 문정옥 박성녀(\$100) 박영순 박혜선 백영희 윤미훈 이문희 이선숙 이수인(\$100) 이영주 이향저 이혜정 전민자 정현진 조선희 조희서 최영숙 최영희 한금숙 한숙희
69	강영옥(\$150) 권민희 김용화 문정인 박혜옥 심현주 이경희 이윤경 이진숙 한정해
70	김성숙 이영현 홍훈정 70기 10명 (\$500)
71	김경진 문성진 안영숙 이명호 조미영
72	권영화 김동숙 김인영 문성혜 박다애 박영신 박혜란 방창범 백경희 이대경 이영숙A 이춘희 이혜란 정경실 최동은 최순화 황진숙
73	김해숙 김혜림 남은영 박연옥 신연옥 이경화 이복순 이선옥 임종화 정애수 정유진 정은복 천혜련 최영희 하정미 홍미향
74	권기숙 권은영 김은경 김정미 김중현 김지인 박정우 신은화 유선이 이경선 이선희 이영희 이현경 이혜진 장난희 전귀민 정인영 조유환 지희자 최선영 최정희
75	권선희 권정현 김미례 안정림 원철경 이연숙 이주혜 장현주 최원경 한영덕
76	고혜경 김세은 김여경 김한영 김혜경 김혜주 김희경 문명화 박명숙 박유리 박은경 박은란 신호정 윤원선 이성자 이영심 전나미 정영옥 조경옥 조희옥 최혜경 한애나
77	강소영 김미혜 김현옥 김형주 심영 이영주 전해영 정은경 최영숙
78	박혜경
79	석재희
80	박원선
87	김은이 (\$100)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성명, 졸업년도, 금액) 필요하시면 기대표나 동창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사회비 (119명) \$22,500

졸업년도 재학시 성명

- 52 김희경
- 55 전영희 홍연숙
- 56 송영자 이혜리(\$300) 최화자 한영숙(\$450)
- 57 윤영순 이안나(\$250) 이양훈 이은경 진영주
- 58 김연 김영혜 이영히 이장란 최운봉
- 60 민경문 신호국
- 61 이민자 이인선
- 62 김차남 김희성 최숙자 홍선애
- 63 강재경(\$1,000) 김명자(enc) 김보연 김윤자
이경옥 이용복(\$300) 주춘탁
- 64 박영신 신영숙 이주희 (\$300) 조규령 최한희
- 65 김대봉 김영주(\$500), 김재기 서병희 송혜경
전애린(\$300) 허순희
- 66 김영희(G) 김영희(L) 이혜옥(예 \$1,100)
장영희 정순희(\$1,100)

- 67 김동순 도경애 박영애 송현숙 송혜성 유재영 이상민
전용선 최영희
- 68 김광숙 김애권 문정옥(\$300) 이문희 이수인
최영희 한숙희
- 69 김용화 심현주 이의정 한정해
- 70 김성숙 김영미 김춘영 백혜란 송묘령 홍순애 홍훈정
- 71 김경진 안영숙 이명호
- 72 김인경 방창범 백경희 이춘희 이혜란 최동은 황진숙
- 73 김해숙 신영옥 이복순 이선옥 임종화(\$450)
정애수 정유진 홍미향
- 74 김은경 김중현 이선희 이영희 지희자
- 75 권선희(\$250) 김미례 원철경 이주혜
장현주 최원경 한영덕
- 76 김세은 김혜경 김혜주 박은경 박은란 신호정
윤원선 이성자 이영심 전나미 정영옥 최혜경
- 77 정은경





제 24호 거울지 후원금 내역

기별후원금:

56, 57, 58,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2, 73, 74, 75, 76, 77

광고 후원금:

Life Med / 김정자(64): \$1,000	M cafe: \$1000
Diamond Global Escrow, Inc. / 홍훈정(70): \$500	California Mortuary Group, Inc. / 강은주(72): \$500
UNI Insurance Services, LLC / 권선희(75): \$500	Ewha Chorale: \$500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500	AM Green Solar: \$500
박영신(67): \$300	윤조현 재정전문가: \$300
조병태: \$200	63 Orange County모임 : \$300

개인 후원금

이혜리(56): \$500, 홍정임(56): \$200, 신영숙(64): \$500, 이혜경(69): \$300, 정인영(74): \$300

거울 사진관 후원금

이영재(54): \$100, 이혜리(56): \$100, 이안나(57): \$200, 김윤자(62): \$300, NY 김부자(63): \$100
이혜옥(예)(66): \$100, 76기: \$2,100, 정은경(77): \$100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본국/미주 장학금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여러 동창님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매년 본국과 미주에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업이 우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1일 부터 6월 30일 까지 신청을 받아 미주 4명의 장학생 (장혜원, 최선하, 김하은, 성해나) 을 선정하여 각기 \$1,000씩을 수여하였습니다.

본국 장학금 후원: 라완균(55) \$18,000, 최화자(56) \$40,000, 박영신(64) \$5,000, 김은숙(60) \$5,000, 남가주 동창회 \$5,000
미주 장학금 후원: 라완균(55) \$2,000, 신영숙(64) \$1,000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선교비 후원

선교비 후원: 박성녀(68) \$1,000 신영숙(64) \$500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매년 해외에서 선교 사업에 수고하시는 동창 몇 분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음 5분의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후원 했습니다. 홍연숙(55), 윤수경(61), 김윤자(63), 조승호(66), 오소숙(73)

거울지 제 24 호를 출간하며...

2025년도 76기가 임원진을 맡게 됨과 동시에 얼떨결에 거울지를 담당하게 되어 걱정과 가슴속 깊이 맺돌 하나 들여놓은 듯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깨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같은 질문이 드는 순간 같이 머릿속이 하얀 도화지같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태 말입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제일 먼저 이제까지 남가주 이화 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일을 하면서는 우리 모든 선배님들의 깊은 이화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이화에서 청소년 시절 "자유, 사랑, 평화" 의 좋은 교육을 받은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75기 선배님들의 따끈따끈한 경험을 통한 가르치심과 모든 정보를 공유해주시고 아낌없이 방출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거울지를 담당하셨던 이주혜 선배님과 회계를 맡으셨던 최원경 선배님은 저희 질문을 마침과 동시에 즉시 답변을 해 주시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심으로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광고로 후원해 주신 동문님들....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를 부탁드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되어 전화를 드리게 되는데 너무나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글들을 보내주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거울지 후원금으로 후원해 주시고, 거울지 일하느라 수고 많으며 손수 당근케익을 구워 보내 주신 선배님, 개인후원으로 맛있는 음식 사먹으며 일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나게 해 주신 선배님들.... 처음 시도하는 '거울 사진관'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한분 한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울지를 맡게될 줄 알았더라면 진작 컴맹탈출을 위한 공부를 열심히 했을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는 데까지 또 힘닿는 데까지 하자는 생각으로 해 왔습니다.

거울지 24호 만날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거울지 팀 박은란, 이영심 (76)





제12차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이화여고 창립 140 주년기념

스크랜튼 초대학당장 서거 117주기 기념

날짜: 2026년 10월 8일-11일 (목-일)

장소: The Prince Waikiki 호텔

(100 Holomoana St, Honolulu, HI 96815)

10월 8일 (목): 개회식, 저녁만찬

10월 9일 (금): 오아후섬 투어, 와이키키 불꽃놀이
선상 크루즈

10월 10일 (토): 총회 및 장기자랑, 음악회

10월 11일 (일): 조찬예배 및 폐회식, 이웃섬 투어

주최: 이화여고 북미주 총동창회 / 주관: 이화여고 하와이 지부

동창회 사무실: 1451 S. King St. #208, Hon. HI 96814 / (808) 955-4985, (808) 386-2277



제 12 차 이화여고 북미주 총 동창회 하와이 행사 일정표

10월 8일 (목요일)	
12:00~15:00	호텔 전용 안내데스크에서 등록 및 체크인
15:00~18:00	호텔 체크인 후 자유시간
18:00	개회식
18:30-20:00	저녁만찬
20:00-21:30	임원회의
10월 9일 (금요일)	
07:00~08:00	조식
08:30~09:00	가이드 미팅 후 전용버스 탑승
09:00~15:00	오아후섬 투어 시작
15:00~15:00	호텔 도착 후 휴식
16:20	선상 크루즈 전용버스 탑승
17:30~20:30	와이키키 불꽃놀이 선상 크루즈
21:00	호텔 도착 후 휴식
10월 10일 (토요일)	
07:00~09:00	조식
9:00~10:00	홀라 강습
10:00~16:00	중식 (도시락) 자유시간 및 음악회 연습
16:00~17:00	음악회 장소로 이동
17:00~18:30	음악회
18:30~19:30	호텔로 귀가
19:30~22:30	총회 및 장기자랑
10월 11일 (일요일)	
07:00~09:00	조찬예배 및 폐회식
10:00~11:00	전용 안내데스크에서 체크 아웃



1박 2일 - 하와이 코나 여행



10월 11일 (일요일)	
11:00~12:00	호놀룰루 국제공항으로 이동, 이웃섬
12:00~14:00	코나 도착
14:00~19:00	이웃섬 일일투어
23:00	호텔 도착 후 휴식
10월 12일 (월요일)	
12:00~14:00	호놀룰루 도착
14:00	각자 귀가

1. The Prince Waikiki 호텔 (100 Holomoana St, Hon, HI 96815)

Prince Waikiki Hotel 은 4 Star 럭셔리 호텔이며 와이키키 지역에서 유일하게 모든 객실이 오션뷰이고, 넓고 편안한 인테리어와 함께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자랑합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객실과 시상 경력을 갖춘 레스토랑, 전용 클럽 라운지, 2 개의 야외 수영장, 인피니티 풀, 스파, 24 시간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컴퓨터 및 프린터가 구비된 라운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알라 모아나 쇼핑센터, 알라 모아나 비치파크, 하와이 컨벤션 센터, 와이키키 해변 등 인기 명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께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호텔이 되리라 믿습니다.

2. 금요일 불꽃놀이 선상 크루즈

금요 디너 크루즈는 17:30 출항, 20:30 까지 운항합니다. 이로 인해 저녁 식사 후 와이키키 해변의 금요일 불꽃놀이까지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채는 4 층 전체에 걸친 데크 구조로, 어느 자리에서든 와이키키의 석양과 불꽃놀이를 360 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셋 디너 & 쇼 코스는 5 코스 또는 뷔페식으로 신선한 랍스터가 제공되며, 프리미엄 음료, 하와이안 음악 및 홀라 공연, 재즈 라이브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합니다.

3. 오아후섬 투어

- ◇ **하나우마베이 (Hanauma Bay):** 오래전 화산의 폭발로 인해 생겨난 분화구로, 현재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물고기들의 천국입니다. 특히 산호초 서식지로서 노클링과 스쿠버 다이빙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얇은바다, 잔잔한 파도는 가족들이 스노클링을 즐기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입니다. 개장시간은 오전 6 시-오후 6 시이며 매주 화요일은 폐장합니다.
- ◇ **블로우 홀 (Blow Hole):** 오아후 섬의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고래가 등에서 물을 뿜어내듯, 바위 사이에서 내뿜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인 곳입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블로우 홀의 바로 옆, 돌길을 따라 내려가면 하로나 비치가 있는데, 이곳은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현지인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며,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남아있는 비치입니다.
- ◇ **중국인모자섬 (Chinaman's Hat):** 뒤로는 병풍같이 둘러싸인 쿠알로아 목장을 두고 앞으로는 푸른 바다에 예전 중국인들이 썼던 모자 모양과 같다 하여 붙여진 중국인 모자섬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중국인 모자섬 앞에 공원은 넓은 잔디밭과 넉넉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의 바베큐 파티나 피크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 ◇ **이올라니궁전 (Iolani Palace):** 이올라니 궁전은 미국의 유일한 궁전으로 1882 년 지어졌으며 '이올라니'는 '신성한 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하와이의 7 대와 칼라카우아에 의해 1882 년 완공되어 왕실의 역사가 막을 내린 1983 년까지 사용된 곳으로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에는 당시의 침실과 연회장의 시설과 생활용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 ◇ **카메하메하 대왕 동상 (King Kamehameha Statue):** 카메하메하는 하와이 원주민 왕국의 초대 대왕으로 1781 년 하와이의 유력한 추장이 되어 1810 년 하와이 통합을 성취하고 왕위에 올라 카메하메하 왕조를 창시했습니다. 왼손에는 창, 오른손은 평화의 손짓을 하고 금박 옷을 입은 카메하메하 대왕 동상은 하와이 옛 재판소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화 송년모임

- 일시 : 12월 6일(토) 오전 11시
- 장소 :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1인 \$100 / 부부동반: \$200 (Raffle Ticket 포함)



이화여자중 · 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